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으랏차~ 새해
건강한 몸과 마음,
학교에서 시작!

부총리 신년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Contents

1 January | Vol. 390

02 신년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획 으랏차~ 새해 건강한 몸과 마음, 학교에서 시작!

06 스포츠에서 시작된 낙도의 기적…

섬마을 아이들의 탁구 열정 후끈_ 편집실

08 매학기 100여 개 넘는 '스포츠리그'로 활기…

남·녀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_ 한주희

10 학교체육 변화 주도하는 '학교스포츠클럽'_ 김경숙

12 구경꾼 없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한마당_ 편집실

14 정책해설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도입_ 김대관

17 정책 카툰 일반고 학생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18 초점 I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_ 김영곤

22 초점 II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_ 황자경

26 소통 달력 황우여 부총리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 36



| 27



| 34



COVER STORY

용인 성지중(교장 신원섭) 스포츠클럽 피구부 학생들이 공을 향해 힘차게 뛰어오른다.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새해, 큰 에너지를 내뿜으며 더 힘차게 달려보자.

27 꿈이 영그는 현장 부산 사상고등학교_ 이순이

31 에너지총전소 창의적체험활동교사연구회 '티처투어'_ 이순이

32 삶과 교육 이인학 충남 당진정보고등학교 교사_ 황자경

36 이런 수업 어때요 서울사대부중 '창의노작 수업'_ 한주희

40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뉴욕의 할렘가를 한국어 열풍으로 바꾸다”_ 신선종

44 학교 밖 학교 실패도 두렵지 않은 청(소)년 창업자_ 이순이

46 명예기자 리포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힐링 콘서트' 외

교육논단 *창의융합시대, 우리 교육의 길*

52 창의융합시대가 요구하는 인재_ 이은경

55 창의융합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와 전망_ 이태욱

58 교육과 법 “옥설·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_ 염철현

60 학교·학급경영노트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나만의 '비밀병기'를 가져라
_ 최종경

64 진로나침반 겨울방학을 알차게 만드는 '진로체험'_ 박재조

66 아이의 사생활 “말해봤자 모를 거예요”_ 안태일

68 시·도교육청은 지금 대구 / 울산 / 부산 / 충북

72 뉴스브리핑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향상에 주력 외_ 편집실

75 일상의 쉼표 새해를 맞는 통일의 문턱, 비무장지대 체험_ 황자경

78 이야기로 보는 인문상식 러셀, 게으름과 여가를 권하다_ 박홍순

80 행복게시판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모집 & 五자만담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일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乙未)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교육도 새해의 밝은 태양처럼 크게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 현장에 실현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며,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5%인 811교까지 확대되었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과학기술의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모두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12년 8.5%에서 '14년 1.2%로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발표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는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대학·전문대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방 곳곳에 작지만 강한 명문 대학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 창업·취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시법 사업 등을 통해 학습과 일의 밀접한 연계를 지원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국가평생학습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4년 지방대학의 취업률(55.1%)이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54.3%)을 앞지르고, 2001년 이후 13년 만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44.2%)이 대학 진학률(38.7%)을 역전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는 2015년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빌랄단계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익힐 수 있도록 실천 체험형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체육·인문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행복과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긍지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내 안전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며, 계층, 지역, 인종, 장애

등에 차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이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를 통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지역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이 지역의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에 사장되어 있는 연구성과를 찾아 산업과 연결시킴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현장에 기반을 둔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은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실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취업 재직자들의 후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기반교육과정과 학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인 NQF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부터 교육부장관은 교육뿐 아니라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직을 겸하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 안전망 구축, 일·가정 양립 등 사회관련 부처에 폭넓게 관련되어 있는 의제에 대해 개별 부처의 입장을 넘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고, 현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미래상을 보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은 “푸른 양”的 해라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푸른색처럼 우리 경제가 살아나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동시에 평화롭고 온순한 양처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 행복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 1. 1.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기획

으랏차~ 새해 건강한 몸과 마음, 학교에서 시작!

- 스포츠에서 시작된 낙도의 기적… 섬마을 아이들의 탁구 열정 후끈
- 매학기 100여 개 넘는 ‘스포츠리그’로 활기… 남·녀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 학교체육 변화 주도하는 ‘학교스포츠클럽’
- 구경꾼 없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한마당



교육부는 '스포츠 행복의 조건, 건강한 몸과 마음, 학교에서 시작됩니다.'란 연중 학교체육 캠페인을 펼치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전국 11개 시·도(서울 외 10개 시·도)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2014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미 7회째에 접어든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과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여가문화 형성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학교 스포츠 활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본다.



여수 화태초등학교

스포츠에서 시작된 낙도의 기적... 섬마을 아이들의 탁구 열정 후끈

탁! 탁! 탁!

탁구공을 빠르게 주고받는 아이들. 전남 여수 화태초(교장 이덕묵)의 스포츠클럽 탁구부다. 올해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 본선 8강에 오른 팀답게 팽팽한 랠리가 이어진다. 이들은 매일 아침 8시 10분이면 등교해 탁구 삼매경에 푹 빠지곤 한다. 본교와 3개 분교를 포함 전교생 17명. 그중 남학생은 7명으로 모두가 탁구부원이다.

“탁구가 정말 재미있어요. 나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자랑거리가 생겨서 좋아요.”

탁구부 주장이자 본교 유일한 6학년인 김태현 군의 '탁구 사랑'은 남다르다. “어린 동생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팔에 힘이 더 강해졌다.”며 김 군은 뿌듯해 했다. 어린 부원들의 열정도 이에 지지 않는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고 입을 모을 정도. 친구와의 사이도 돋독해졌다. 월호분교장 대한이와 복식조를 이뤘던 4학년 박현빈 군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 체력도 좋아졌다.”며 웃는다.

“아이들의 변화는 몸으로 말해줍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발해졌으며 힘이 생겼어요.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학력도 향상되었지요. 학교의 변화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활기가 넘쳐요.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학교 오광성 교사의 얘기다. 교내 다목적실에 놓인 탁구대와 탁구라켓이 전부지만, 그로 인한 변화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교생 17명, 섬마을 학교 탁구부 전국 8강 진출

지난해 전남교육감기대회 남자부 우승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한 화태초 탁구부는 본선 8강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탁구대회 엔트리는 8명이지만, 섬이라는 특별사정을 감안해 올라간 대회에서도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비록, 전국 우승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우승팀보다도 더 큰 화제를 낳았다. 모두들 ‘낙도(落島)의 기적’이라 했다. 오 교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4강에 진출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섬 지역 작은 학교에서 이런 성과를 이루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을 대견해 했다.

화태초는 전남 돌산도 아래 화태도에 있다. 화태도의 본교 8명을 포함, 대횡간도 여동분교장에 2명, 대두라도 두라분교장에 3명, 월호도 월호분교장에 4명씩 흩어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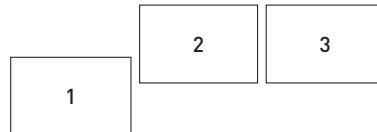


다. 적은 인원인 만큼 학교스포츠클럽을 꾸리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 2012년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탁구부로 어렵게 첫발을 내딛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인내심과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학생들에게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기를 돋우려고 했던 것. ‘초등학교에서 배운 악기와 운동은 평생 간다.’는 학교장의 의지가 더해지고, 탁구선수 출신인 정송필 주무관이 부임하며 탁구부 활동은 탄력을 받았다.

딱히 문화시설이나 즐길 거리가 없던 아이들에게 탁구는 재미난 게임이었다. 두라·월호분교장 학생들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7시 50분 통학선을 타고 오고가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방학에는 전지훈련, 주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 30~40분씩 자율적으로 연습에 참여했다. 교내 탁구대회는 어느 프로경기 못지않게 열기가 뜨거웠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 직접 조리한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방학 중에는 점심을 제공했다. 또한, 여름·겨울방학 전지훈련에 동참하며 아이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지역사회는 학교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역교육청을 비롯한 여수시청과 제일모직, 지역운항여객선 등으로부터 탁구용품과 운영비 지원이 이어졌다.

그 이듬해, 전남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화태초 탁구부는 2위를 거머쥐었다. 성취감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바꿔 놓았고, 학부모들의 동참도 이끌어 냈다. 특히, 부모동행 탁구대회를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



- 화태초 남자 탁구부는 지난 2014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본선 8강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 탁구부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 10분이면 등교해 탁구 삼매경에 끝 빼지곤 한다.
- 부모동행 교내 탁구대회는 201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대되고 지역사회 유대도 강화됐다.

전교생 하나로 뭉쳐… 협동·배려 등 스포츠맨십 키워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은 스포츠라는 매개를 이용해 전교생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를 통해 협동·배려 등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고,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스포츠맨십, 체력 등 건강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경기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스포츠로서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이덕묵 교장의 말이다. 다만, 올해는 남자 7명 중 6학년 1명이 졸업하고 4학년 2명이 전학을 가기에 대회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생활 스포츠가 되도록 남·녀 구분 없이 탁구부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역과 연계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는 그는 탁구를 활용해 학교를 지역사회 문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

용인 성지중학교

매학기 100여 개 넘는 '스포츠리그'로 활기... 남·녀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글 | 한주희 본지 기자

“이얍! 악!”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두 발을 굴러 연이어 착지시킨다. 완벽한 옆돌기 자세. 용인 성지중(교장 신원섭) 스포츠클럽 치어리딩 동아리 'FLY' 학생들이다. 덤블링도 손쉽게 할 것처럼 가벼운 몸놀림이 이어졌다. “치어리딩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몸이 날렵해졌어요.” 2학년 정명진군이 웃으며 말한다.

지난 12월 15일 오후 3시 30분. 방과 후 교내 다목적실에 모인 16명의 남녀 학생들은 충분한 준비동작 후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자세” 이규삼 지도교사의 구호가 떨어지자 고난도 안무를 선보이는 FLY. 3명의 남학생이 여학생을 어깨 위로 올려 순식간에 다시 받아내는 모습에서 그간 훈련을 짐작케 했다. 올해는 경기도대회 스텁트 치어리딩 종목에 출전해 중등부 우승도 거머쥔 실력파들이다.

“올해 3월 치어리딩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동아리죠. 운동 삼아 참여하게 됐는데, 대회에 나가고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요. 고난도 안무는 친구를 믿고 몸을 맡겨야하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더욱 친해졌지요.”

2학년 김민수 양은 그간 몸도 많이 유연해졌다. 힘들던 앞구르기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고. 매일 연습하면서 체력도 좋아졌다.

“매일 매일 운동회가 열려요!”… 하루 3경기 이상 리그전

성지중은 피구, 댄스, 축구, 농구 등 8개 종목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 중이다.

전교생 940여 명이

각각 최소 3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 활동할

정도로 활기차다. 특

히 눈길을 끄는 건 여

학생들의 참여 수. 최

근 2년간 여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전교생이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컸어요. 체육은 남학생이 주도한다는 인식을 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경기 룰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조철환 체육부장교사의 말이다. 여학생 중심의 치어리딩, 피구, 댄스 동아리를 구성한 것도 톡톡히 덕을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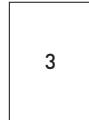


1. 2. 치어리딩 동아리 'FLY'. 청단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완벽하게 고난도 안무를 소화하고 있다.



3. 여학생들도 축구나 농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을 쉽고 재미있게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2



그러나 무엇보다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가 큰 힘이 됐다.

성지중은 운동회가 없다. 대신 매일 하루 3경기 이상 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1~3학년 27개 학급이 모두 참여하는 반대항 리그로, 지난 학기만 해도 137개에 달하는 교내 리그가 열렸다. 아침·점심·저녁시간 틈틈이 열리는데, 학기마다 종목도 달라진다. 1학기에는 축구리그대회, 2학기에는 피구리그대회 등을 통해 학급 구성원을 한 개 팀으로 구성하고 열띤 응원전도 펼쳤다. 특히, 응원점수와 경기 참여수도 승패에 반영되기 때문에 승점이 높아도 우승자는 뒤집힐 수 있어 단결심은 절로 높아진다고. 반대항 리그전으로 자발적으로 오후에 연습 경기를 진행하는 등 아이들 사이에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여학생 참여 열기 높아… 경기 를 변경해 남·녀 선수 출전

여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점도 이색적.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도 반대항 리그에서 중요한 선수들이다. 축구리그에서는 전반전 여학생, 후반전 남학생, 연장전 남녀 혼합으로 운영된다. 피구리그도 룰을 바꿨다. 여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한 보디가드 피구는 남자는 남자만 아웃시킬 수 있고, 여자는 남녀 모두 아웃시킬 수 있게 변형했다. 2학년 박윤영 양은 “반이 뭉쳐야 1등할 수 있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된다.”며 “축구나 농구는 여학생들이 안 하는 종목인데 반대항 리그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남학생들도 응원해 주고 서로 격려해준다.”고 말한다.



아침, 저녁으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학습 분위기는 좋아졌다. 초기 학원 결석 문제나 학력 저하 등을 우려하던 학부모들의 반대도 차츰 줄었다. 특히 지난 2년간 학교 폭력 건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출석률도 좋아졌다. “매일 1교시 지나서 오던 아이가 축구 클럽에 오려고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한다.”고 조 교사는 귀띔한다.

이러한 성지중의 성공 사례는 지난해 용인시 스포츠리그로 확대됐다. 각급 학교 남·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 간 리그전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전체가 들썩였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리그로 확대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특히, 내년부터 경기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스포츠리그는 더욱 활기를 떨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사는 말한다.

“지(자기)밖에 모를 뿐더러 ‘지(知)’로만 가득찬 아이들에 체력을 키워주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체·덕·지자를 갖춘 전인교육, 즉 창의·소통·나눔·배려·존중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 변화 주도하는 ‘학교스포츠클럽’

글 | 김경숙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지원센터장(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장)

학교스포츠클럽은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의 학생(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제외)으로 구성되고 교육청에 등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의미한다. 정과 체육(체육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체육활동) 수업 외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어느 때보다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교육적 성과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의 영역 내에서 정과체육 수업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육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과 의미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질적 및 양적인 확대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추진한 몇몇 활성화 정책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정규 체육수업 시간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2시간을 의무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으로 배정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 정책으로 여학생 선호종목 운영, 교내 반 대항 및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는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참여종목 운영 그리고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스타 강습을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1,000팀에 지원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생활화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대회 운영을 기준의 토너먼트 방식에서 리그로 개선함과 동시에 토요 스포츠테이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초·중·고 등학교 교육지원청 대회를 리그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스포츠클럽활동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계획한 ‘지역스포츠클럽활동 인정방안(2014)’은 학생들의 지역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점차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선정,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의 지원 대상 학교 수의 확대, 연간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 비율의 시

도평가 시 반영 등의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였다.

정부의 다양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이제 학교체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본다.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를 위한 제언

첫째,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이는 학교 교사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개인의 열정과 희생을 요구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업무담당자의 교체로 발생하는 총괄적인 운영과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행정 업무의 연계성과 일관성 있는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다양한 스포츠클럽활동과 정기적인 교류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간의 교류전과 지역리그가 이루어지는 주말에는 지역의 성인 생활체육동호인들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지역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협의하여 예비생활체육인들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시설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숨은 결정권자인 학부모와 관련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인식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학부모와 학교 및 체육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인식 및 관심 수준은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의식전환과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학교스포츠클럽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교내 스포츠클럽활동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의 리그운

정부의 다양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이제 학교체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 시 요구되는 심판, 시설, 운영요원 등의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체육 유관기관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시·군·구, 시·도 차원에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선정 또는 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협력기관 간의 계약체결을 독려함과 동시에 협력지침서 등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높아질수록 교사들이 클럽 관리와 생활기록부 기록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현실화를 포함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도를 위한 일정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하는 방안 등 교과 외 활동 지도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구성되고 참여하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이 보다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교내의 다양한 클럽 팀 구성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내대회를 통해 학교대표선수들이 선발되어 지역 및 전국대회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근거로 한 체육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내면화하여 실제 생활로 긍정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학교스포츠클럽이 확대 발전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과 방안이 기대된다. ❸

학생스포츠클럽 이렇게 운영해 보세요!

구경꾼 없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한마당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하우도 학교마다 각양각색. 구경꾼 없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학생의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교사 먼저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학교도 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의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 학생의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내라

전남 광양여중(교장 박서담)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스포츠위원회가 있다. 명실공히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1등 공신들이다. 2011년 학생회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는 교내 각종 스포츠대회 기획과 진행, 각 반 스포츠 멘토반 활동과 스포츠클럽 매니저 활동을 도맡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홍보물을 제작해 아침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등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촉매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위원회가 주도하는 스포츠클럽 대회는 토요스포츠데이에 학급 대항으로 열린다. 대회 공고 후 신청서를 제출한 팀과 반이 참여하는 데 그 열기가 대단하다. 한 학년 위의 스포츠위원회가 심판을 맡으면서 반별 싸움이나 불화도 사라졌다. 특히,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위바위보, 단체 공튀기기 등을 열고, 런닝맨 응용게임(상대편의 띠를 제한 시간 안에 많이 떼어 내는 경기), 콩주머니 나르기 등 놀이형 경기를 4~5개씩 엮어 반대표 선수가 아니라도 모두가 경기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장학금이나 표창장 외에도 스포츠위원회 학생들과 체육활동 우수학생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전은 '스포츠 투



어'. 양궁, 펜싱, 사격 등 레져스포츠를 체험과 진로투어를 겸한 체육대학 탐방이 이뤄진다.

경기 파주 청석초(교장 정사홍)는 배구체험교실을 특색 있게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등교 전 체험교실에서 아침운동을 통한 기초체력 운동을 하고, 목요일에는 리시브와 서브 등 전술, 전략을 연마한다. 습득한 배구 기능을 반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배려와 협동심을 키우는 것이 특징.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타 구기 운동, 내가 칭찬왕, 내 마음을 받아요(편지 쓰기) 등 협동력을 기르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2

1. 전남 광양여중 토요스포츠데이 학급대항 스포츠클럽 대회
2. 경기 성남 분당고 사제동행 배드민턴
3. 중동초 0교시 축구클럽 '중동슛들이 FC' 로고
4. 울산 삼호중 '1운동 티쳐 홀스쿨링'

1

4

3



✓ 학교생활의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

경기 성남 분당고

(교장 장병국) 점심

시간은 70분이다.

매일 중·석식 시간

마다 스포츠리그가

열리기 때문인데,

'B-리그'로 불리는

분당고 축구리그가

대표적이다. 이 틈새 시간에는 학년별 2개조로 편성된 리그전이 연중 열린다. 남학생이 축구리그를 펼치는 동안 여학생은 뉴스포츠 바운다룬배구 리그전이 치열하다. 바운다룬배구는 배구와 경기 규칙이 동일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높이는 '효자 종목'이다. 축구, 농구 등 7개 종목에 등록된 클럽수는 151개 팀. 수능 준비로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1개 이상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1학기 기말고사 이후부터 방학 때까지는 '스포츠클럽 week'다. 연중 치러진 교내 리그의 본선 경기가 한 주간 진행되는데,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이 적절히 운영돼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 사제동행 스포츠클럽도 인기. 일과 전이나 중·석식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탁구와 베드민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부천 중동초(교장

김진복)는 0교시에 축구클럽을 운영한다. 매일 등교하기 1시간 전부터 축구클럽 30여 명은 축구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축구클럽은 인성교육과 함께 이뤄지는 점이 특징. 축구 인성캠프와 훈련인성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친해지기 프로그램으로 이름 맞히기 게임, 당신은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게임, 스킨십 게임 등을 개발하



는 한편, 팀 대항에서 기능이 부족한 아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출발점을 다르게 하거나 팀원 전체가 협력해 할 수 있는 놀이형 리프팅, F-1 달리기 등의 게임도 있다. 경기 후 상대방 진영에 가서 감독과 응원단에게 인사하거나 우리 편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힘내!' 외치기 등 경기매너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페어플레이상을 시상하고, 페어플레이상 점수를 반영 경기 시 우선권도 주고 있다.

✓ 교사와 함께 스포츠를 즐겨라

울산 삼호중(교장 이길배)에는 평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대회에서 소외된 학생이나 학교부 적응 학생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다. 1박 2일간의 스포츠 힐링 '1운동 티쳐 홈스쿨링'이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운동을 선생님과 함께 체험하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은 1학생 1교사, 1박 2일 기숙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 예산으로 식비와 문화지원비 등을 지원하는데, 다녀온 후에 교사는 실시보고서를 학생은 소감문과 감사편지를 쓴다. 학기 중 참가희망 학생과 교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 참여 교사와 학생은 교내 마련된 티쳐 홈스쿨링 숙소를 이용하거나 학생의 집, 교사의 집에서 하루 동안 같이 지내면서 돈독한 시간을 보낸다. 지난 첫 해에는 참여한 학생은 10여 명. 김무환 예체능부장교사는 "교사는 학생이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스포츠 활동 중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학생은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관심을 사랑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전한다. ❸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도입

2016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부터 NCS 기반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다. 다만, 새 직업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이전이라도 일부 희망하는 학교는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기준 교과서의 보조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개발된 NCS 학습모듈이 학교 현장에서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16년 특성화고 신입생부터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적용

특성화고 학생들이 숙련기술·기능인으로써 성장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교 재학 중에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충분하게 경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산업현장 중심으로 직업교육과정 체계를 체계화하여 '16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시에 '14년까지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일선 특성화고·マイ스터고 전문교과 수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이다. 교육부는 NCS의 구체적인 능력단위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인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교수준의 NCS 학습모듈은 '15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고교 수준의 NCS 학습모듈 개발 일정(460개) :
('13)29개 → ('14)117개 → ('15)314개

※ NCS 학습모듈 전체 개발 일정(777개) :
('13)55개 → ('14)175개 → ('15)314개 → ('16)233개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우선 활용해 보고 싶어요!

새 직업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에 일선 학교의 전문교과 수업에서 NCS 학습모듈을 우선 활용하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www.ncs.go.kr)를 방문하여 개발된 NCS 학습모듈 중에서 담당하는 교과와 부합하는 학습모듈을 선택하여 기존 교과서의 보조 학습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 대통령 지시사항 - '14.4.14, 성동공고 방문 시 》

- 학습모듈 개발이 완료된 것부터라도 빨리 시행에 들어가서 추진토록 할 것

교육부는 NCS 학습모듈이 학교 현장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4년에 18개 「NCS 학습모듈 활용 수업연구회」를 선정하였고 지난 연말 연구회별 활용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새해에는 「NCS 학습모듈 활용 수업연구회」를 50개로 확대하고, 학교별 동일 학과 동 교과 교사로 구성된 「NCS 학습모듈 활용 교과목 팀」 100개 팀을 선정하여 NCS 학습모듈 우선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특성화고·マイ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에 「NCS 학습모듈 활용 분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NCS 학습모듈 우선 활용은 국가수준의 새 직업교육과정 개발·적용 이전이라도 교사의 노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가능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새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새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 ①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발 · 고시 및 교과서 개발
- ②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법 · 제도 정비
- ③ 일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및 후속 지원(환경 구축 등)
- ④ 기 개발된 NCS 학습모듈 우선 활용 지원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총론 개발 연구(13.8~'14.9)를 실시하였고, 현재 각론 개발 연구(14.11~'15.8)를 진행하고 있다. 새 직업교육과정은 '15년 9월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이후에는 500여 종의 전문교과 교과서(공통과목 16종, NCS 기초과목 114종, NCS 실무과목 440종)를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된 새 교과서는 현재 사용 중인 전문교과 교과서와 함께 편성 · 운영된다.

《 그간 추진 경과 》

- ▶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총론 개발(13.9~'14.9)
- ▶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4.7.11)
- ▶ 2015 문 · 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주요사항 발표(14.9.24)
- ▶ NCS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학교 기반조성 계획 수립
- ※ 교육과정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설명회(14.6~7, 70회)
- ※ 교원 임용 · 양성체계 및 실습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14.11)

적용 일정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NCS 학습모듈 (777개)	230	314	233		
교육과정 적용		고시(9월)	1학년	1~2학년	1~3학년
교과서 개발			전문교과 교과서 (공통 · 기초 · 실무)		
후속 지원		정책연구	환경 구축(실습기자재 등)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NCS를 적용한 교재나 NCS 학습모듈을 교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NCS와 NCS 학습모듈이 법률(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NCS 박람회 전경

개발 · 관리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기관에서의 NCS 학습모듈을 전문교과로 편성 · 운영하는 것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새 직업교육과정 편성 지원을 위해 '15년 상반기에 전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새 직업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새 직업교육과정 확정 · 고시(9월) 이후에 특성화고 직업교육과정의 전문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새 직업교육과정의 안정적인 도입 ·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 활동으로 새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실습기자재 등) 구축 방안을 '15년말까지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새 직업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역량 강화 교원 연수(핵심요원 2,500명)를 실시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를 위한 포럼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5회).

학교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15년 9월에 고시될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은 보통교과가 아닌 전문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이므로 '16년 신입생의 교육과정 중에서 전문교과를 새 직업교육과정에 맞게 편성 · 운영하여야 한다. 편성된 전문교과 중에서 NCS 기초 · 실무과목은 대부분 2학년 이후인 '17년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직업교육과정은 기존의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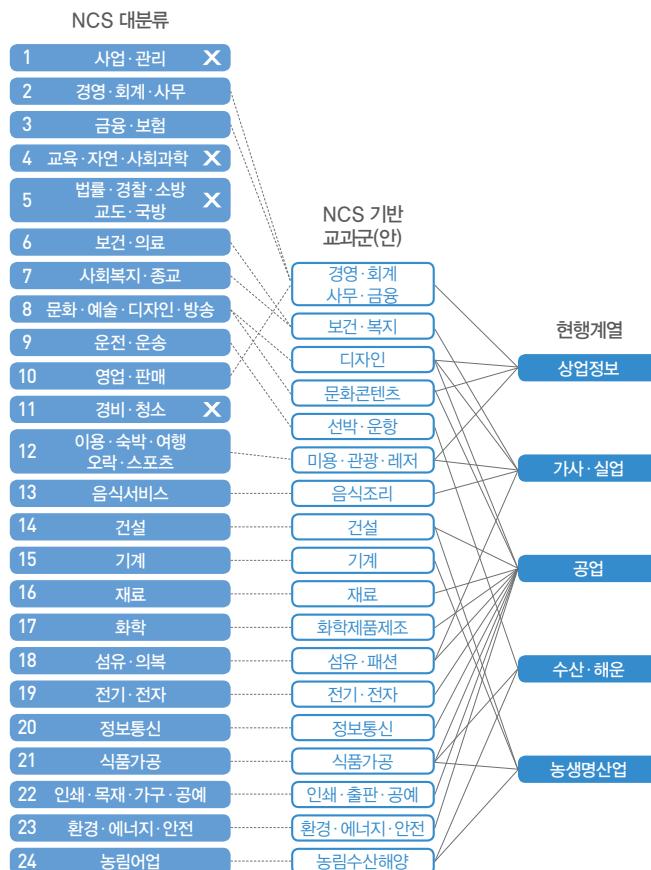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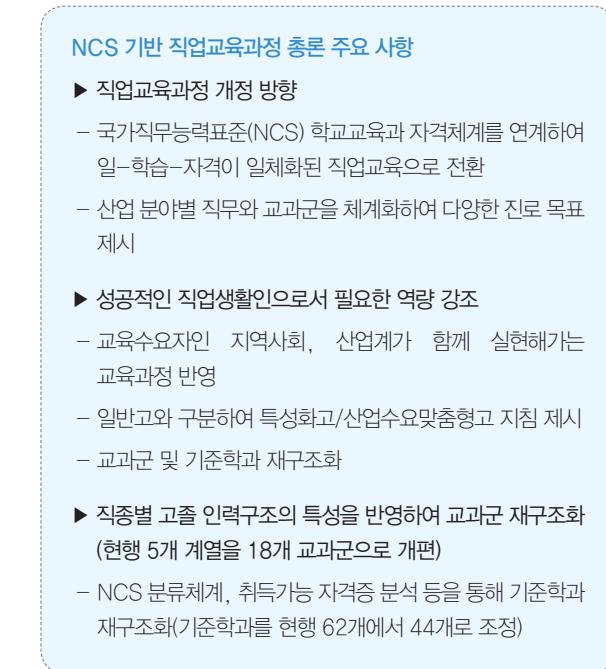
교과 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개발될 교과서와 함께 편성·운영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새 직업교육과정 고시 이후에 이루어질 신입생의 교육과정 편성·적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므로 '15년에 이루어질 '16년 신입생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일정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총 2,500명의 전문교과 교원(핵심요원)을 대상으로 서울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역량 강화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핵심요원을 주축으로 학교 내 자율 연수를 실시하여 새 직업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NCS 학습모듈 활용 수업연구회」와 「NCS 학습모듈 활용 교과목팀」을 중심으로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수업에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⑤

전문교과 편제 개편(안)

구 분	내 용	과목수
보통 교과	•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에 실용과목 반영(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 지식재산일반, 실용경제)	5
공통 과목	• 18개 교과군을 기준으로 공동 기초교과목 도출 (성공적인 직업생활, 직업윤리, 산업안전, 창업일반 등)	16
전문 교과	• 기초적인 지식, 기술, 기초실습 등의 교과목 (마케팅, 디자인일반, 기계기초공작, 전기회로, 식품과학 등)	114
실무 과목	• NCS 학습모듈에 기반 한 실무 중심 교과목(예산, 실내디자인, 선반가공, 전자제품생산, 제빵 등)	440
합 계		575



일반고 학생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일반고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1년 과정의 직업 교육 위탁과정을 도입하여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폴리 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및 고용부 지원 직업 전문학교 등을 통해 확대 운영한다. 전문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의류디자인, 보건·간호, 방송제작 등 서비스 직종이 추가로 개설되어 학생들은 원하는 분야의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직업 교육 훈련비 전액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대표, 유엔, 세계은행 등…

1,500여 명 모여 세계 교육 발전 목표 논의



201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는 교육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교육 관련 장관, 유엔, 세계은행 및 국제기구,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5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모든 학습자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 시대에 부합할 교육 패러다임을 논의하게 된다.

새 시대 교육 패러다임 논의… 한국의 교육 경험 세계와 공유

‘2015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태국 졸티엔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고,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된 데에 이어 1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태국 졸티엔 세계교육회의 당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 개최된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EFA 운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6대 교육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6대 목표 〉

- ① 영유아 교육·보육 확대
- ② 초등교육 보편화
- ③ 청년 및 성인 학습 요구 보장
- ④ 성인 문해율 증진
- ⑤ 교육의 양성 평등 달성
- ⑥ 교육의 질 보장

지난 25년 동안 진행되어온 EFA 운동은 보편 교육의 확대,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 추구, 문해 해소 등 교육에 있어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왔다. EFA 운동의 목표 달성을 마감 기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그동안의 EFA 교육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이에 유

네스코를 중심으로 기존

EFA 목표에 대한 성

찰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

아 보다 보편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교

육 의제를 설정하고

자 논의 중에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이 내

년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확정되고

추진될 것이다.

한국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 교육이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도 교육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이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교육을 통해 한국이 이루어낸 발전 경험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주관하





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소규모 국제 포럼과 교육 전시관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 현장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의 의미

한국은 교육부 내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준비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포럼 준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세계교육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 외에도 교육 및 국제 협력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이 모여 매달 '국제교육협력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포럼을 통해 한국이 전달할 메시지를 구체화하고, 포럼 이후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저마다의 소질과 적

성에 따라 꿈을 이루어 가고,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되어 자라난 인재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곤 한다.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 한 명인 파키스탄의 소녀, 말랄라는 노벨상 수상 연설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교육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위협에 맞서 노력해야만 하는 말랄라의 사례는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이들이 배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교육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키워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경험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를 잘 알고 우리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국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이 이러한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국제 사회가 뜻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교육 분야 최대의 국제포럼이 2015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 개요

“한국이 일구어 낸 대단한 교육성과들을 생각한다면, 2015 세계교육포럼을 한국에서 개최 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

기간

2015년 5월 19~22일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장소

2000년 이후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의제를 이끌 교육목표 설정

참가규모

유네스코 회원국(195개 정회원국, 8개 준회원국)
장관급 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대표 등
1,500명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제안을 받아, 2015년 세계교육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네스코의 원조로 교과서를 보급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향후 15년간의 교육개발 의제를 수립하는 국제무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 ▶ 본 행사 : Post-2015 교육의제와 관련된 전체회의, 주제별 패널토론, 분과회의
- ▶ 부대행사 : NGO포럼, 유관기관 국제포럼, 상설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별 행사
- ▶ EFA 운동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의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 이슈를 주제로 회의 내용을 구성
- ▶ 포럼 결과물인 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한 선언문 초안작업반 운영

	사전 행사(5.18)	1일차(5.19)	2일차(5.20)	3일차(5.21)	4일차(5.22)
오전	NGO 포럼	부대 행사	NGO 포럼 부대 행사 개회식	전체회의 2 주제별 패널토론 분과회의	전체회의 4 분과회의 전체회의 5
오후			전체회의 1	전체회의 3	고위급 회의 폐회식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연혁

1990 세계교육회의(좀티엔)

World Conference on EFA
EFA 목표 출범

국제사회는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 유아, 초등, 문해, 기술교육을 아우르는 범세계적인 기초교육 운동인 EFA가 출범했습니다.

2000 세계교육포럼(다카르)

World Education Forum
EFA 목표 개정

2000년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은 21세기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교육회의였습니다. 2000년 세계교육포럼은 EFA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함으로써,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더불어 보편적인 교육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실행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인천)

World Education Forum 2015
새로운 교육목표 설정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기존의 EFA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기회 확대를 넘어서 교육의 질 제고, 글로벌 시민교육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발전된 교육의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의제들은 UN의 Post-2015 개발의제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원화된 교육의제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 교육 의제 (안)

총괄
목표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보장

세부
목표

- ① 영유아 보육 · 교육 확대, 최소 1년의 무상의무 취학전교육
- ② 최소 9년의 양질의 무상의무 기초교육
- ③ 청년 · 성인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문해력 · 기초수리력 획득
- ④ 직업/후기중등/고등교육을 통한 직업과 삶을 위한 지식 · 기술 획득
- ⑤ 글로벌시민교육(GCE)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⑥ 양질의 교사들에 의한 교육 보장
- ⑦ GDP의 4~6%, 공공지출의 15~20%를 교육에 투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은 목표가 되고,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뭉근하게 퍼지고 웃음소리가 피어오른다. 이곳은 부산 사상고등학교 급식실. 배식대에 선 학생들이 차례차례 음식을 담는다. 이날의 메뉴는 산채비빔밥, 청국장찌개, 김치, 핫도그, 그리고 사과 한쪽.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점심시간에 갑자기 ‘빅뉴스’가 떴다.

“앗, 장관님이닷!”

텔레비전에서 보던 낯익은 얼굴이다. 학생들 사이에 줄 맞춰 서서 음식을 받고 있는 이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황 부총리는 지난 11월 26일 부산 강서구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FAU) 부산캠퍼스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 사상고를 찾았다. 사상고 방문은 미리 약속된 것이었으나 점심급식을 함께 하는 일은 급작스레 이루어진 일이어서 학생들 입에선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행여 식사 준비에 수고를 끼칠 것을 염려해 예고 없이 가볍게 들른 걸음이다.

황 부총리는 학교를 찾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철저히 당부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교문 앞에 도열하지 말 것, 둘째 (차, 현관)문 열어주지 말 것, 셋째 장관에 앞서 학교장을 더욱 깍듯이 모실 것 등이다. 실제로 그가 현장을 찾을 때는 수행비서와 담당과 직원 등을 포함해 방문인원이 최대 3~4명을 넘지 않는다.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더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밥 먹다 고개 드니 “앞자리에 장관님?”

식판을 놓고 학생들과 마주앉은 황우여 부총리의 얼굴에



학생들과 소탈하게 점심급식을 즐기는 황우여 부총리

환한 웃음이 번진다. 학교급식이 익숙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서너 개씩 싸갖고 다니던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느라 한창이다. 황 부총리의 눈빛이 세월의 거리를 뛰어넘어 학생들에게 가닿는다. 자세히, 천천히, 학생들 하나하나를 오래 들여다본다.

“아마 장관이 학교에 찾아오면 교장선생님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불편하고 귀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상고는 특히 어려운 지역의 학교라고 해서 꼭 한번 오고 싶었어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적 성공을 이루어가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방문은 무엇보다 저를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려이 봐주십시오.”

황우여 부총리의 말에 김원도 교장은 “오는 2월 퇴임을 앞둔 교장으로서 선물 같은 일”이라며 화답한다. 황 부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두 차례 이상 학교를 찾고 있다. 그의 말대로 언제나 ‘어려운 지역’을 먼저 향한다.

취임 직후 첫 방문지로 전남의 낙후 교육시설을 찾은 것 이 좋은 예다. 그는 세월호 사고 후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라며 E급 건물이 있는 전남 영암 낭주 중과 장도분교, D급 건물이 있는 목포 문태중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에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 하늘꿈학교를 찾은데 이어 국립서울농학교에 들러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를 나눴다.



“누군가 이상(理想)을 이야기하면 먼 이야기 같고 한가한 소리로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목표가 되고, 뚜렷한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육이 세계화, 창의, 융합 등을 지향해 나아가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결국 ‘인성’에서 나옵니다.”

초점Ⅱ



이번 사상고 방문 역시 어려운 지역을 먼저 챙기려는 의지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사상고가 위치한 덕포동 일대는 사상공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다. 학교 한편으로 쪽방촌이 이어져 있고 낙후지역·우범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늘 외면 받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8년 개교한 사상고가 이듬해 자율형공립고(자공고)로 지정되자 학교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다. 변변한 사교육시설 하나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오직 학교의 힘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내외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학생의 노력, 교사의 열정, 학부모의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다.

“사상고의 성공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학교의 전재는 지역 재생의 기반이 되지요. 즉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은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미래의 기반이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수많은 성취를 만들어낸 사상고의 사례는 자공고 정책의 성과인 동시에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부산의 공단지역 학교까지… 그가 내딛는 걸음에서 우리는 황우여 부총리의 시선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눈길은 시종 낮고 소외된 곳을 향해 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머물지 않고 그 곳에서 푸른 비전과 용솟는 희망을 포착한다. 국회 교육위에서 14년간 활동한 경험을 내려놓고, 그는 현장에서부터 새로 듣고 배우고자 귀를 기울인다.

유·초·중·고 중점 둘 교육 가치는…

사상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학

생들의 견의가 흘러나왔다. 인문계고교 학생들의 관심사는 역시 수능과 대입제도. 학생들은 논술학원·면접학원 등이 전무한 자신들의 상황을 예로 들며 대도시 우수지역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지금의 대입제도를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연이은 수능문제 오류로 고2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토로했다.

“성적 중심의 경쟁 교육은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 일변도의 교육은 한계에 부딪쳤어요. 저마다 꿈과 끼를 찾아 자신만의 특색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학 역시 특색을 갖추고 전학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해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역시 이와 같은 변화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수능에서 2년 연속 실수와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세히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수능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설불리 미봉책을 만들어 내놓기보다는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입시변화 등을 두루 살펴서 중·장기



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으로서도 노심초사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만들겠으니 학생 여러분은 불안감을 떨쳐내고 학업에 전념해 주세요.”

황우여 부총리는 유·초·중·고 별로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유치원은 생애 첫 교육인 만큼 ‘동등한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든 유치원에서는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생각을 이루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안전을 지켜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중학교에서는 행복에 대해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와 타인, 나아가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 형성의 때라는 의미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과 연계해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뛰는 가슴으로 도전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학교장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돼야

“누군가 이상(理想)을 이야기하면 면 이야기 같고 한가한 소리로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목표가 되고, 뚜렷한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육이 세계화, 창의, 융합 등을 지향해 나아가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결국 ‘인성’에서 나옵니다. 내 학생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미래를 동



1.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간담회
2. 황우여 부총리가 학생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고 있다.
3. 과학수업을 참관하는 황우여 부총리
4.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東)과 서(西)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에서 교육적 소신을 충분히 펼 수 있을 때 우리교육에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수능을 끝내고 대학 입학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에게도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참 소중한 시기”임을 재차 강조하며 “하고 싶던 일, 보고 싶던 사람, 읽고 싶던 책 등을 떠올리고 꼭 실천해 보라.”고 당부했다. 학생의 질문에 더욱 공들여 답을 내놓은 그는 학교를 둘러본 후 또 다음 일정을 위해 걸음을 옮겼다.

간담회를 마친 한 학생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쑥스러운 듯 웃으며 “좋다”는 짧은 대답을 돌려준다. 때론 어린 시절의 한 만남이 마음의 지형을 결정하기도 한다. 황우여 부총리가 맞잡아준 손과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해준 답변이 오늘 이 학생에게 남긴 것은 무얼까. 학생들은 어깨를 포개고 운동장에 서서 황 부총리의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

황우여 부총리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황우여 부총리는 해외 주요 인사들의 내방을 맞아 교육협력과 관심을 강조하는 한편,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달 8일에는 제주도 서귀중앙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자유학기 모습을 살펴보고, 10일에는 관계 기관과 미용분야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에도 나섰다. 황우여 부총리의 지난 한 달여간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데메케 마코넨 하센 에티오피아 부총리 일행 내방
(12월 2일)



2014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시상식 참석
(12월 4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제주도 서귀중앙여자중학교
방문(12월 8일)



더크 헤베커 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내방
(12월 1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미용사회중앙회,
미용분야 산업체학교, 공공기관 간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미용분야의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12월 10일)



람지 카짐 오글루 테이모로브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내방(12월 10일)



'한-아세안 대학총장포럼' 참석
(12월 11일)



포항 양덕초등학교 건물안전 시설점검 관련
방문(12월 27일)



부산 외국어대학교 준공식 참석(11월 26일)

부산 사상고등학교

‘열악’을 ‘열정’으로 바꾼 학교의 힘

현재 자율형 공립고 4년차인 사상고는 오는 3월이면 자공고 2기에 들어선다. 그동안 펼쳐온 맞춤식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발 표학습을 비롯해, 그동안 과학·수학 분야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열악’을 ‘열정’으로 뒤바꿔 놓은 사상고를 소개한다.



파동의 속도 측정을 탐구과제로 정해 연구해온 ‘사이언스ABC 동아리’ 학생들과 김승만 지도교사. 사이언스ABC 동아리는 이 주제로 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서 은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으며, 학생들을 지도해온 김승만 교사는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하였다.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얹혀있는 사상공단지역에 위치한 사상고(교장 김원도). 학교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열악'이라고 말하지만,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학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한껏 느껴진다.

사상고는 2008년에 문을 연 학교로, 신축된 교사가 아닌 폐교된 중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이듬해에 자율형 공립고, 교과교실제,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받으면서 별관을 신축, 교과교실을 확충함으로써 지금의 학교 외관을 갖추게 됐다. 사상고는 현재 자율형 공립고 4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과학중점학교 운영과 맞물려 학교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 선생님들은 스스로 수업방법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교수법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쏟아냈다.

발표학습 · 수준별 수업으로 학력 올리고, 올리고~

사상고의 첫 번째 변화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일궈낸 것이다. 사상고에서는 '맞춤식 수준별 학습'과 '자기주도적 발표학습'이라는 용어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수업의 배경에는 첨단 기자재를 구비한 교과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했다. 학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은 전용교과교실에서 영어, 수학, 과학교과에 대해서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학년 수학·영어 과의 경우, '2+1'(2학급을 3개의 수준으로 세분화한 수업) 체제로 운영되며, 학생들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 3학년 수학·영어과는 '3+1'(3학급을 4개의 수준으로 나눠 세분화한 수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수업을 세분화하면서 늘어난 수업 부담은 영어, 수학 전문 강사를 확충하면서 해결하였다.

김원도 교장은 "이런 수업 형태는 일과 수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원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후 특강에서도 수준별 수업이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방과후 특강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보충학습 혹은 심화학습 차원에서 이뤄



지며, 수능 교과목 중심으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활용, 강좌당 12명 내외로 편성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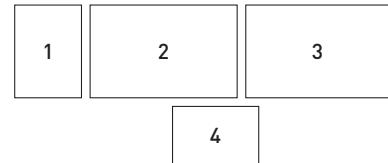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수준별 수업에 자기주도적 발표수업이 더해져 학력 신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7칸의 수학교과교실에는 각각 전자교탁과 3면에 화이트보드 등이 갖춰져 있다. 4면을 가득 채운 7개의 칠판에는 문제 풀이가 빼곡하다. 수학 담당 교사가 학생을 호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배정된 칠판 앞에 서서 설명을 이어나간다.

사상고의 모든 수학수업은 자기주도적 발표수업으로 진행된다. 담당 교사가 다음에 배울 부분을 학생들 각자에게 과제를 내주면, 그 학생들은 다음 시간까지 스스로 과제를 연구해 와야 한다. 이렇게 해결한 과제는 쉬는 시간에 미리 칠판에 판서를 해두고, 차례가 되면 풀이과정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식이다. 담당 교사는 총괄적인 부분을 점검해 주면서 학생들이 설명한 부분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수업이 이뤄진다.

"저희반은 경쟁이 생겨서 발표수업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수업준비도 더 철저히 하고요. 저는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



부산 사상고의 수준별 수업이 궁금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1. 5년째 사상고에서 교육 틀을 만들어온 김원도 교장
2. 한 학생이 수학교과교실에서 미리 팀구해온 과제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3. 리코더 연주를 통해 따듯한 감성을 키워나가는 학생들
4. 수년간 자공고를 운영하면서 축적해온 자료들. 이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학교에서 사상고를 방문한다.

다보니 남에게 설명하거나 무언가를 발표하는데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김규룡(3학년) 학생의 설명이다.

김원도 교장은 “신입생들을 데리고 자기주도적 발표수업을 진행하면, 학년 초에는 많이 힘들어한다. 하지만 무섭게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사상고는 한때 부산지역 90여 개 학교 가운데 학력이 낮은 학교였지만 수학을 3년간 자기주도적 발표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부산지역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 올라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자기주도적 발표수업의 숨겨진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부터 자기주도적 발표수업을 타교과로 확대하여 다양한 교과에 적용하고 있다.

우수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 마음으로

한편, 사상고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얻고 있다. 과학교과교실 2실, 과학실험실 4실, 과학교과연구실 2실 및 과학리소스센터 1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업녹화장치, 컴퓨터, MBL 등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MBL 실험(컴퓨터 기반 과학실험)은 고가의 장비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반고 과학 수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학중점학교 예산과 과학 관련 창의적 체험 활동, 전문적인 교사의 역량 때문에 가능하다.

과학 중심 프로젝트 탐구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다. 현재

스팀 프로젝트연구 동아리인 'LED 탐구반' 학생들. 그동안 LED 광학보드 개발과 융합과학 실험 방법을 탐구해 왔다.



150여 명의 학생들이 20개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니롤러코스터를 제작하여 운동 원리를 탐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교내 프로젝트 발표 대회를 열고 있다. 1학년 창의체험 활동 수업에서는 물리와 생물을 융합해 씨앗의 비행 과정을 모티브로 낙하산을 만들고 직접 날려 보는 대회도 개최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위해 사상고는 일반계 교육과정을 토대로 과학·수학 이수단위를 총 교과 이수단위의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깊이 있는 심화학습을 비롯해, 과학·수학 중심의 체험활동, 특별교과·전문교과 등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키우고 있다. 물론, 이공계를 향해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승만 교사는 "매년 각종 과학 관련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과학·수학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유도, 그리고 진로와 적성을 위해 적극 활용해 왔다. 교육환경이 열악하지만 과학중점학교에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등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가슴 따듯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한편, 학력 신장 못지않게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사상고는 매년 소풍 대신 걷기대회를 열고 있다. 1학년은 우포늪 일대를 걸으면서 생태·자연환경 체험활동을 겸하고 있다. 2학년은 환경사랑 걷기 대회를 열고, 부산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인 이기대 갈맷길(오륙도 해맞이공원~

농바위~어울마당~이기대~동생말) 4.6km 구간을 사제 간에 함께함으로써 대화하며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걷기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 보호와 생태체험을 덤으로 얻고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해 따듯한 감성을 키워나간다. 사상고는 전교생이 1인 1악기로 리코더를 연주한다. 쉬는 시간이면 곳곳에서 리코더 부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음악 시간에 도입단계에 리코더를 주로 배우는데, 대중가요, 팝송,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한다. 한정화 음악교사는 "어려운 곡은 편곡을 해서 리코더 핍주를 하고 있다. 캐치, 넬리판타지아 등 수준 높은 곡을 연습해 '학예제' 때 무대에 올리는데, 학생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사상고는 맞춤식 수준별 학습을 비롯해 자기주도적 발표학습, 다양한 과학·수학 체험활동 및 팀 프로젝트 활동 이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학교에서 사상고를 방문한다. 수년간 추진해 온 다양한 활동자료는 고스란히 축적되어 많은 학교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상고는 지난해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됨에 따라 2019년까지 자공고의 지위를 얻게 됐다.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자공고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해 온 점, 자공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일반화에도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처럼 사상고는 오는 2월이면 자공고 1기를 마치고 3월부터는 2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비상하게 될 사상고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창의적체험활동교사연구회 ‘티처투어’

교실 밖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지난 12월 13일, 4.19기념탑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배우는 티처투어 역사 프로그램 수업이 열렸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왕지원), “이승만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북한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저도 같은 상황이면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오민지), “민주화를 외치는 죽은 사람 중에는 제 또래 아이들도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승만대통령 앞에는 경찰이 있고, 그 앞에 시민들이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체험하면서 공부하니까 기억에도 생생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김호준)

초등 5학년 역사교과서에 실린 4.19혁명에 대한 설명은 단 몇 줄. 하지만 이날 체험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묻자 용인 보평초 4학년 학생들은 이처럼 느낀 점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무척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체험학습에는 용인지역 학생들 39명과 교사 7명이 참여했다.

티처투어는 정재호(안양 귀인초) 교사를 주축으로 뜻을 함께하는 교사들의 순수 교육기부 모임이다. 현재 150명(초등 100명, 중등 50명)의 선생님들이 월 1~2회 가량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교육기부 형태로 참여한다.

“우리 교사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의 기회는 적고, 또 외부업체에 맡기다보니 교사들의 개입이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체험활동을 방관하는 것을 교사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장 교사와 뜻을 함께한 서울, 경인지역 교사들이 2001년부터 교사모임을 꾸려 맞춤식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초창기에 만든 자료는 활동지 수준이지만 수차례 개선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교과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특히 교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오류를 꾸준히 수정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경복궁’, ‘청덕



티처투어 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4.19기념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궁’ 등 여행지 60여 곳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다.

티처투어 프로그램은 특정 과목이나 단원에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과목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체험 장소를 선정,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과학 통합 프로그램과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두 당일코스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티처투어는 시스템을 이원화하여 교사는 학생 관리를, 학부모는 수입과 지출 관련 회계를 맡아 투명하게 운영 중이다. 티처투어는 입장료와 식비, 간식비, 버스비 등 실비에 10%를 더해서 받는다.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6만원대다.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경비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 남는 돈은 전액 기부한다. 12월 6일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티처투어는 모든 자료를 e-book으로 만들어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60여 곳은 이미 자료화하였으며, 앞으로 표준화모델 100곳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 교사는 “교실 밖에서는 세상이 교실이다. 교실 밖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한다.

자료 문의 : 정재호 귀인초 교사, bbudice@daum.net.



이인학 충남 당진정보고등학교 교사

“폐교 위기 학교를 철강마이스터의 산실로… 꾸준히, 끊임없이 내 제자를 사랑하라”

기술 선생님, 정보컴퓨터 선생님, 상담 선생님, 농업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인학 교사의 이름 뒤에는 여러 호칭이 따라다닌다. 교직기간 중 그가 취득한 교원자격증이 5개, 기타 자격증 수만 헤아려도 무려 34개에 이른다. 여러 교과를 넘나들며 변화와 도전을 이어온 이유는 하나다. 새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선 교사 자신이 멀티 티쳐(Multi-Teacher)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꾸준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인학 교사는 풍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과 인성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품물을 치는
이인학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는데 익숙했던 아이들이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지요.
나눔을 실천해본 아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학생들에게 미쳐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
는 뜻으로 주신 것 아닐까요?”

제3회 대한민국 스승상에서 대상을 받은 이인학(60) 교
사. 그에게 수상의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문자 이렇게
대답한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우리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2년부터 교육부의 ‘으뜸
교사상’과 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이인학 교사의 말대로 ‘미쳐
서’ 살지 않았다면 과연 이를 수 있었을까 싶은 일들이 그
의 이력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이인학 교사는 이전 근무지인 충남 당진 합덕제철고(당
시 합덕산업고)를 마이스터고로 탈바꿈시켜 철강기능인의
산실로 자리 매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합덕제철고등학교는 1951년 합덕농업고등학교로 개교
해 2003년 합덕산업고로 변화하는 등 노력을 거듭해 왔으
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
었다. 2006년 이 학교에 부임한 이인학 교사는 폐교만은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철강특성화고’로 변화의 기치를 내
걸었다. 농업고등학교에서 출발한 폐교 직전의 학교를 철
강분야 마이스터고로 만들자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당시 이충호 교장선생님, 박석우 마이스터부장, 김종
구 직업교육부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하나 되어 오직 학
생과 학교만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밤
늦도록 마이스터고로 선정되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생산해
내었고, 교실수업에서부터 인성교육까지 원점에서부터 다
시 보며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당진시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환영철강 등

굵직굵직한 철강회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철강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교사는 학교와 기업의 산
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마침내
2008년 제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전국 9개의 학교 가
운데 합덕제철고등학교가 철강분야 마이스터고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사회 변화를 읽은 도전적 발상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다.

사활을 건 마이스터 인재 양성

이인학 교사는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 졸업인증 시
전교생 토익 700점 이상을 포함해 기능사 자격증 6개 이
상 취득 등 학력신장과 더불어 기능향상을 꾀했다. 또한
문화·예술 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읍면단위 학생들인 점
을 감안해 신디, 풍물, 오카리나, 통기타 등 1인 1악기 교
육과 함께 태권도 2단 취득과 1인 1운동을 의무화했다.

“악기와 운동을 강조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구경꾼’ 내지 ‘주변인’에 머물지 않았으면 하는 바
람에서였습니다. 업무 외에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자신만
의 특기를 갖고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히 주인공으로 서라
는 것이지요.”

수업 전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교사는 협
력업체의 명장을 초빙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
업을 전개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멘
토가 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 총동문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력을 거듭한 결과, 학교 변화를 반기지 않던 농
고·상고 시절의 동문들조차 적극적인 협력자로 돌아섰
다. 신입생 유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폐교의 위기에 내몰

리던 학교는 현재 수 대 1의 높은 경쟁률과 졸업생 100% 취업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며 젊은 마이스터들을 길러내고 있다.

엔지니어에서 교사가 되기까지…

이인학 교사가 폐교만은 막겠다며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뭘까. 사실 이 교사는 공업토목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경제성장의 봄을 타고 토목경기가 활황일 때 그는 대청댐 등을 만들며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가족과 떨어져 현장에서 지내야 하는 업무환경이다 보니 결국 정주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작은 사립중학교의 기술교사로 교직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남보다 뒤늦은 출발이었으나 에둘러온 교단은 정겹고 따뜻했다. 그 자신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생 때부터 토끼와 닭을 길러 수업료를 마련하던 일이나 수학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기억,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좌절감 등은 교사로서 앞으로 그가

살아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됐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밝혀주는 일, 교사의 길은 그에게 숙명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첫 근무지였던 면단위 작은 중학교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결국 폐교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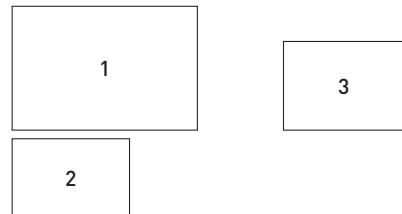
그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해 공립학교에서 교직을 이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첫 학교의 폐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았다.

“남은 학생과 교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졸업생들의 추억이 갈 곳 없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두 번 다시 하고 싶



지 않았어요. 합덕산업고가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합덕제철고로 거듭난 것은 제 교직생애에서도 가장 벅찬 보람입니다.”

이인학 교사는 35년 교직기간 중 시 단위 근무가 단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읍이나 농촌 면단위의 작은 학교에서 주로 일했다. 그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른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우수한 아이들은 굳이 자신이 아니어도 스스로 잘 하므로 어렵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기운다는 것이다.



-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학력신장뿐 아니라 기능 향상을 강조하는 이인학 교사
- 상담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이인학 교사는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는다.
- 이인학 교사는 지난 근무지였던 합덕제철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틸바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자를 잃지 않는 스승으로 산다는 것

이인학 교사가 학생들의 꿈을 풀무질하는 일 외에 정성을 쏟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다.

합덕제철고에서는 약 4000평의 밭을 조성해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가꾸면서 학생들에게 땀 흘리는 일의 어려움과 선함을 체험하도록 했다. 수확한 작물은 봉사기관이나 경로당에 나누어 주고 가을엔 학부모봉사단과 함께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었다. 또 당진시노인요양원, 실버프리, 평안마을, 평안실버 등 노인시설에 매년 120시간씩 이미용, 발마사지, 종기접기, 미술치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언제나 도움을 받는데 익숙했던 아이들이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지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생들을 친손자처럼 기다리시기도 하고요. 나눔을 실천해본 아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이인학 교사는 동료교사들과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진정보고로 전근한 이 교사는 요즘도 한 달에 두 번 합덕제철고 학생들

과 토요 봉사활동을 펈다. 또 독학으로 공부한 중국어를 활용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떠드는 아이들조차 고맙고 예쁘다는 이인학 교사는 “제자를 잃지 않으려면 교사는 ‘꾸준히,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잃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이다. 가정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을 포함해 꿈을 포기하거나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제자들을 모두 안는 말이다.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 생일마다 촛불을 켜고 축하를 잊지 않는 것도 생일미역국조차 변변히 챙겨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사정을 해아리기 때문이다.

교직의 마무리 길에 접어든 그는 “햇살은 만물을 골고루 비추지만, 나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인학 교사는 자신이 길러낸 7,500여 명의 제자들이 우리사회를 비추는햇살이 되기를 ‘꾸준히,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낸다. ❷

서울사대부중 ‘창의노작 수업’

창의노작의 핵심은 ‘자기 표현’

학생들이 기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배우는 교육은 이제 그만. 서울사대부중은 지난 한 해 동안 학생들 스스로 직접 만들고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교육 전반에 걸쳐 시도했다. 수업은 다채로워졌고, 학교는 생기가 돌았다. ‘창의노작’으로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는 서울사대부중 교육 현장을 찾았다.

‘휘잉~ 휘잉~’

지난 12월 9일 서울사대부중 3학년 4반 과학시간. 회전 진공청소기 과학키트를 풀어 놓고 부품을 요리조리 맞추느라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실험실은 어느덧 공작실로 변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키트를 완성하는 과정이 재미난 듯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몰입한 모습이다.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지만 누구하나 딴 짓 하는 아이가 없다.

“진공청소기를 작게 만들어 보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평소에도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다보니 수업이 지루하지 않아요.”

제어진 군은 지난 한 해 “수업이 재밌어졌다.”고 말한다. ‘창의노작 활동’으로 수업시간마다 다양한 만들기를 시도하게 된 것. 이날 과학시간에는 15분간 진공청소기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승우 군은 “공기의 압력차에 의해 청소기가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됐다. 글로 이해할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며 웃는다.

같은 날, 3학년 8반 기술시간에는 ‘요술램프 만들기’ 수업이 진행 중이다. 이정훈 교사는 기울기 스위치 원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항상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에 따라서 스위치가 되는 원리에요. 스위치 안에 있는 작은 쇠구슬이 움직이면서 기울기에 따라 전류가 흐릅니다.”

이 교사는 3색 발광 다이오드(RGB) 등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요술램프 키트를 꺼내도록 했다. 스티커 위에 전자회로를 만들어 RGB-LED를 기울기에 따라 ON/OFF할 수 있는 과학키트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일부 학생만 고개를 끄덕이더니, 직접 설계한 후 만들기에 성공한 대다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과 특성상 창의노작 활동을 가장 많이 시도한다는 이 교사는 “기술교과가 쉽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늘었다. 학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의 조화

서울사대부중은 지난 한 해 ‘창의노작 활동’을 교육 전반에 걸쳐 도입했다. 학생 스스로 직접 만들어 보고 경험해 보는 활동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것. 올해 범인화로 전환된 서울사대부중이 학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출발한 시도다.

“창의노작은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고 몸도 쓰면서 창의·인성을 키우는 것이지요. 지난 한 해 학생들은 교육 전반에 걸쳐 도입한 창의노작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요.”

박란정 교장의 말이다. ‘창의노작’이 적용된 수업에서는 일단 교사의 주입식 강의가 줄었다. 경험의 주체가 학생이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생의 활동이 늘어났다. 특히, 과



“창의노작은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고 몸도 쓰면서 창의·인성을 키우는 것이지요. 지난 한 해 학생들은 교육 전반에 걸쳐 도입한 창의노작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요.”

각자 만든 요술램프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3학년 8반 학생들과 이정훈 교사



학·수학·기술·사회과에서 중점적으로 창의노작을 도입, 다양한 수업 시도가 이뤄졌다.

삼각형 내심을 좀 더 재미있게 가르쳐보자는 생각으로 수학과 교사들은 '내심 시계 제작하기' 활동을 진행했다. 1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2차시 동안 새로운 음료수 용기 디자인 콘테스트와 수학신문 만들기 등도 시도했다. 실험·실습이 많은 과학과 기술/가정교과 중심의 창의노작 수업도 다채롭다. 태양이 백색광임을 이해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빛 합성 기구를 제작해보고, 친환경 에코백 만들기, 자신만의 태양 전지 장난감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 기술교과에서는 우드락을 이용해 계단을 만들어

보고, 막대를 이용해 모형하우스를 제작하는 한편, 창의적인 롤링볼 제작활동으로 과학과 연계한 스템교육을 구현하기도 했다. 인문교과인 사회교과에서도 독도모형 제작을 통해 독도교육에서 아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의 조화다. 서정아 자연과학부 부장교사는 "남학교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만들기를 좋아한다."며 "기존 실험·실습과 창의노작은 다르다. 창의노작은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를 할 때,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학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교과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확실히 올라갔다."고 말한다.

학년별 단계적 활동계획 수립… 학년말 전시·이벤트 개최

서울사대부중의 창의노작 활동이 특징적인 건 학교 전반의 교육활동과 교과 전반으로 창의노작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점이다. 각 교사의 재량에 따라 진행해 오던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학기 시작 전 각 교과별 교사들이 모여 창의노작과 연계할 단원과 활동을 논의하고 학년별로 단계적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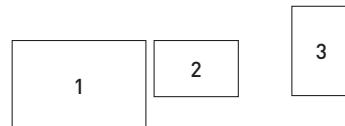
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은지 과학교사는 "학기말 창의노작과 연계해 3학년은 모형 진공청소기를 만들어 본다면, 2학년은 창의적 과학 모형제작, 3학년은 창의적 풍력발전기를 제작해 보는 활동을 한다."고 밝힌다.

지난 한 해는 각 교과에서 필요한 키트를 구입, 과학적 원리를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시간 배분이 적절한 활동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면서 다수 교사들이 창의노작 활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올해는 지난 해 경험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창의 노작활동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창의노작 활동은 교사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평소 보다 많은 수업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지요. 초반엔 이를 귀찮아하는 교사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수업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늘어난 건 좋은 변화지요."

서정아 부장교사의 말이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모두 모아 지난 10월 결과물 전시회를 실시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전시에서는 원심력 육놀이, 관성 딱지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이벤트가 함께 열려 전교생이 즐기는 축제 분위기였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모형 진동청소기 만들기
과학수업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창의노작 활동으로 만든 결과물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3학년 4반 아이들과 유은지 과학교사
2. '나만의' 무동력 자동차 만들기 창의노작 결과물. 창의적 설계로 각양각색의 무동력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3. 모형 진공청소기 만들기 과학수업



창의노작으로 하나 되는 학급

창의노작 활동은 특기적성, 인성교육, 체험활동, 체육·예술 활동, 학급활동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며 수업 변화를 이끈다. 수업 외 방과 후, 축제기간, 학급별 시간에도 창의노작 활동이 자주 이뤄지도록 유도한 것. 특히, 학급활동은 지난 한 해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학급텃밭을 만들거나 나무 조형물을 만드는 등 창의노작적인 활동을 한 후 저녁을 함께 나눠 먹으며 학급마다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희망학급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다양하게 계획해 운영하는데, 나무명찰을 달아주거나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등 학급마다 다채롭다. 더스트박스(먼지통)를 제작하거나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학급도 있고, 질경이로 만든 제기로 제기차기 대회를 열거나, 늦게까지 남아 천체관측을 하는 학급도 있다. 3학년 강현민 군은 “텃밭에서 상추 등을 수확하면서 보람됐고, 수확 후 친구들과 삼겹살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다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즐겁다.”고

말한다. 학급운영에 도움이 되면서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재활용품으로 각기 다양한 물총을 만들고 놀면서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급캠프 활동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1~6반), ‘솔밭의 자연물을 이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보라는 과제에서 학생들은 정말 창의적이게도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해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냈다.’(3~2반), ‘교과학습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3~6반)….

체육·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전시·공연 등 학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전·사후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박란정 교장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몸을 쓰고 체험하는 즐거움을 가르치려 한다.”며 “친구와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동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 창의노작 활동으로 학교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

[표] 창의노작 중심 교육활동

분야	세부 분야	활동 예시
창의노작 중심 융합인재 교과활동	과학교과중점 창의노작	빛 합성기, 에코백 제작하기, 태양광 장난감 제작하기, 7 Segment 활동 등 선택과목 발전기 제작하기
	사회교과중점 창의노작	독도모형 제작
	수학교과중점 창의노작	종이접기, 내심 시계 만들기
	기술/가정교과중점 창의노작	발명체험하기, 롤링볼 만들기, 로봇팔, 생활소품, 음식 만들기
학급별 융합인재 교육활동	학급단위 창의노작활동	학급별 텃밭 가꾸기, 창의적 음식 만들기, 솔밭 체험하기 등 각종 체험활동 운영 지원

“뉴욕의 할렘가를 한국어 열풍으로 바꾸다”

‘1. Write your full name in Hangul.(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오)’

답 : 리아나 웨스트. 지난 11월 19일 오전 미국 뉴욕 주 뉴욕 할렘가에 있는 데모크라시 프렙 스쿨. 공립 고등학교인 이 학교는 학생들이 외국어로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날 교실에서 만난 9학년(한국의 고교 1학년) 리아나 웨스트 양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시행된 시험에 진지하게 응하고 있었다. 다음 문제들은 단어 테스트였는데 Class room, School, Pencil 등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리아나를 비롯한 22여 명의 학생들은 진지하게 한국어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할렘가 고교, 한국어 배워 100% 대학 진학

이 학교는 미국 최고의 빈민가로 꼽히는 뉴욕 할렘에 있다. 학생들 중에는 한국계 등 동양계는 한 명도 없다. 모두 흑인과 라틴계다. 80%가 저소득층, 75%가 한부모 가정 자녀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학교 교훈은 ‘Work Hard.(열심히 공부하고) Go to College.(대학에 가서) Change the World(세상을 바꾸자)’였다.

학교 창립자인 세스 앤드류 교장이 12년 전 충남 천안시 동성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재직할 당시 본 한국식 교육을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식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을 해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기자 등 관계자들을 만나자 두 손을 배에 올리고 “안녕하세요.”라며 배꼽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학교는 한국어 교과가 필수이고 탈춤, 사물놀이 등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이 학교는 2년 연속 100% 대학 진학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52%가 아이비리그 등 ‘하이 랭킹’ 대학에 진학했고 96%가 4년제 대학에 갔다. 100% 대학을 보내는 성공적인 성과를 내자 이 학교 경쟁률은 4대1이 넘는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허영재 교사는 “학교 학생들은 한 번도 한국어를 접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학교 방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브라운대에 진학한 학생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한국어를 마스터 할 정도라면 브라운 대 교육도 충분히 이수할 수

-
1. 데모크라시 프렙 스쿨의 한국어 시험지
 2. 폴린 파월 스쿨 한국어 수업
 3. 데모크라시 프렙 스쿨에서는 한국어 교과가 필수다. 한국어 수업 장면



있다'고 높은 점수를 줘 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설립자는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 주, 워싱턴DC 등의 빈민가에도 이 같은 교육과정의 학교를 세워 7개 분교 2,000여 명의 학생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소피 리 씨는 "이 학교는 미국의 다른 학교와 달리 오전 7시 30분에 등교를 해 오후 5시까지 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할렘지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전혀 모르던 부모들도 '안녕하세요.' 등의 기본적인 인사를 하는 등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한글 보급

뉴욕 주변 지역은 한국어 교육이 활발한 곳으로 꼽힌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주, 뉴저지 주, 펜실베이니아 주, 코네티컷 주, 델라웨어 주 등 5개주를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한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16만여 명, 영주권자가 5만 1,000여 명, 유학생 등 일반 체류자가 12만 6,500 여 명 등 총 33만 9,000여 명이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학교와 한글학교 등 총 155개교와 2개 한국어 관련 협의회 등에 올해 79만 4,65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당 평균 5,127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다. 박희동 뉴욕 한국교육원장은 "뉴욕지역은 한글학교와 한국어 교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 10월 초 뉴욕시 퀸즈도서관과 한국어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들의 모임도 활발하다. 한글학교 운영자들과 뉴욕 인근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있다. 지난 11월 18일 뉴욕 맨해튼 한식당에서는 뉴욕 한국교육원 주최로 이들의 모임이 열렸다. 뉴욕에서 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펜실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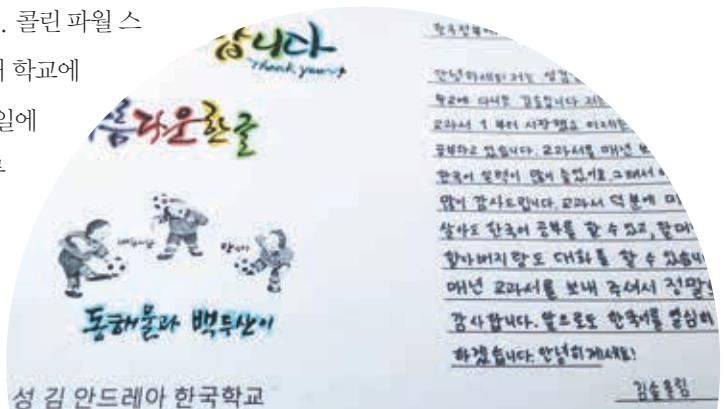
니아 주 한글학교 운영자도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학교 간 합동 교사연수회와 학예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보다 질 높은 한국어 교육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김경욱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회장은 “한글학교 운영자들과 현지 학교의 한국어 교사들이 만나는 자리는 이날이 처음”이라며 “서로가 가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같은 민족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교육국에 있는 최윤희 씨는 “미국, 특히 뉴욕지역에 한류 열풍이 커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많다.”며 “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이 학생들의 가족들도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등 민간외교 분야에서 한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때부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다

21일 오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인 콜린 파월 스쿨에서는 이 학교 유치부 학생들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2학년 과학 과목 수업을 듣는 아란은 이날 한국어로 “제 이름은 아란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 예정입니다.” 등을 발표했다. 이 학교 린다 클리포드 교장은 “학생들은 50% 이상이 한국계 등 동양계인데 3년 전부터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수업을 하고 있다.”며 “전교생이 한국 문화를 배워서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수업도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희 유치부 교사는 “2주일 정도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반복해 학생들이 배우기 쉽게 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교육청은 한국어 교육에 특히 관심이 많다. 콜린 파월 스쿨처럼 정규 과목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교육청 관내 7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카랜가자 페어팩스 교육청 교육감과 광역 교육위원인 문일룡 교육위원 등이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나 콜린 파월 스쿨의



“미국, 특히 뉴욕지역에 한류 열풍이 커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많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이 학생들의 가족들도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등 민간외교 분야에서 한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성과를 보고 지역 내 다른 학교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한국교육원은 패어팩스 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개발했다.

“정규 수업과 방과후교육으로 한국을 배워요”

안미혜 워싱턴 한국교육원장은 “페어팩스 교육청의 한국어 보급사업으로 한인 2, 3세의 한국어 학습 기회가 증대되고 미국 학생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며 “페어팩스 카운티 외에도 버지니아 주의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 등에서도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인근 지역인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 등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한국교육원은 82개 한글학교, 4개 한국어 강좌, 13개 초·중등학교 한국어 개설학교 등에서 5,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지원비만 32만 달러가 넘는다. 이 같은 지원으로 매주 토요일 한글학교가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22일 방문한 워싱턴통합한국학교 버지니아캠퍼스는 메이슨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특징은 교민 자녀뿐만 아니라 주재원 자녀들을 위한 귀국자반도 운영하고 있었다. 1~6학년까지 한국과 같은 교과과정 수업을 토요일 하루 종일 받고 있었다. 또 교민 자녀들을 위해 이들에게 맞춰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수업도 하고 있었다. 중·고생들을 위해서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SAT 수업도 하고 있다. 정종철 주미 한국대사관 교육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올라가고 한류 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류 열풍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 한글과 한국 문화 보급의 전진기지로서 뉴욕과 워싱턴DC 내 한국교육원의 역할이 더 중요지는 이유다. ☰



드림엔터

실패도 두렵지 않은 청(소)년 창업자

‘드림엔터’를 방문하면, 각자 꿈을 향해 늦은 밤에도 열정을 불태우는 청소년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들은 드림엔터에서 어떤 꿈을 꾸는 것일까?

늦은 밤, 창업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는다

기자가 드림엔터를 찾은 시각은 금요일 오후 8시. 연중 개방하는 드림엔터에는 창업동아리 대학생들의 폐기 넘치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불금’과 ‘주말’을 이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 친구들과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삼삼오오 모여드는 10대들이 눈에 들어왔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기정(선린인터넷고1) 학생은 “IT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서 함께 컴퓨터 공부를 했고, 스마트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제작에 대해서 배웠다. 드림엔터는 밤새서 작업하기 좋은 작업환경이어서 친구들과 오게 됐다.”고 한다.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이 학생은 SNS 서비스 일종의 ‘픽스 SNS’ 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소년기업 제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픽스는 현재 13명이 각자 앱개발, 디자이너, 경영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학생 때는 학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프로그램도 잘 다루고, 경영능력도 갖춘 IT컨설턴트가 꿈이에요. 현재 모 통신사의 서버실을 대여해 둔 상태이고요. 사업자등록도 마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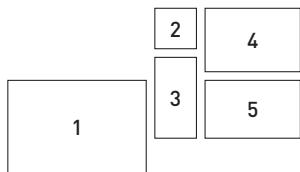
이동인(클루소프트웨어 대표 · 수원 천천중3) 학생은 이곳에서 보안(해킹)전문가로 통한다. 초등학교 때 해킹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IT 분야에 입문하게 됐다. 중1때부터 혼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부하면서 앱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초창기에 PC방 자리예약을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현재 친구 이호



준 학생과 조립식 컴퓨터를 브랜드 컴퓨터 사양만큼 향상시키면서 본체 케이스 디자인을 강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동인 학생은 “청소년기업은 수익이 적어도, 실패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말한다. 이 학생은 현재 8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학생 신분이지만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등 사업에도 열정적이다. 이런 열정을 높게 평가받아, 현재 드림엔터 2층에 어엿한 사무실을 두고 있다.

365일, 24시간 끼지지 않는 드림엔터

서울시 종로구 KT빌딩에 위치한 드림엔터는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성공 창업의 꿈을 이루는 둑지이며, 다양한 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교류, 협력,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365일 24시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정



1. 3. 드림센터 내부 모습
2. 예비창업자들에게 IT 분야 멘토 역할을 하는 박용호 센터장
4. 대학생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학생들
5. 창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꿈을 펼치는 10대 창업자들. 이기정(맨 위), 이동인(원쪽), 이호준(오른쪽) 학생

QR코드를 스캔하면
10대 창업인과 드림센터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의 오프라인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3월 문을 연 드림센터는 월 평균 7천 명이 방문하여 창업정보를 얻고 있다.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2층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협업공간(청춘 창업실, 예비창업실)도 마련되어 있다. 독립 공간으로 구성된 멘토링룸과 콘퍼런스홀, 회의실은 홈페이지에서 예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멘토링과 컨설팅, 세미나, 포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드림센터는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방문하는 예비창업인에게 관련 분야 멘토와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컨설팅을 통해 추상적인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켜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식품·에너지·농산·환경·디자인·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마케터·변리사·회계사·변호사 등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또 투자자와 유관기관 등을 연결시켜주는 등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3500여 명의 멘토를 주축으로 매주 2~3회 멘토링과 컨설팅을 진행,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창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현재 중·고생 창업인은 200명 정도. 박용호 센터장은 “창업은 국가 생존의 전략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미래를 움직이는데, 그런 뜻에서 창업인은 경제를 이끄는 장군인 셈이다. 혼자 가는 것은 어렵지만 같이 가면 쉽다.”고 설명한다.

드림센터는 이런 이유로 미래 경제를 이끌 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학교를 찾아다니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강의한다. 사업 아이템도 좋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고, 벌어들인 수익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학창시절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창업에 대해 해 볼만하다는 학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신발, 배추를 팔다보면 소비자의 심리도 파악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고도화된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드림센터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드림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자. 회원가입 하나로 다양한 창업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문의 02-739-9154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힐링 콘서트’

음악의 ‘어울림’은 서로 다른 것들의 조화와 화합을 상징한다. 이러한 음악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하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지난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지휘 곽승훈)가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 콘서트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마음을 위

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사회에 환기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해마다 콘서트에서 연주되는 곡들은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친숙한 곡들로 엄선하여 선정되고 있다. 또한, 콘서트 중간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김의성)의 특강도 진행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콘서트를 3월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연주단은 대전고등학교(교장 김현규) 관악부 학생들이다. 대전고등학교 관악부는 창단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80명 이상의 단원을 유지하고 있는 대편성 관악부이다. 대전고 곽승훈 교사의 지휘 아래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꿈과



대전고 관악부 학생들의 ‘힐링 콘서트’ 공연 모습

끼’를 살리는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실천하고 있다. 대전고 관악부는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들처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기 초부터 ‘힐링 콘서트’를 위해 꾸준히 연습해왔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차이를 조화로 빚어내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어 이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들의 ‘어울림’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힐링 콘서트’를 지휘한 곽승훈 교사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였다.”며 콘서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관악부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기교와 테

크닉보다 음악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을 통해 학교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며 예술 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 ‘힐링 콘서트’는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멈출 없이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심이 관심이 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학교폭력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글 | 험지원 명예기자(대전성남초 교사)

배려와 공감으로 만들어 가는 글꽃 행복교육

“오늘 아침에 학교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전글꽃중학교(교장 이석범) 교실마다 놓여 있는 릴레이 감사노트에 적혀 있는 글이다. 학생들은 한 줄 감사일기를 작성하여 즐겁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눈다.

대전글꽃중학교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감사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생학교로서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단계에 있는 만큼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아리활동 시간이나 방과후학교 시간이면 교내에 항상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전국대회 수상을 자랑하는 관현악반 학생들 때문이다. 개인별 악기연주를 위한 기능 연습도 있지만 관현악부의 연습 대부분은 합주를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듯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나만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현악반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합주를 하다 보니 다른 친구의 악기 연주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박자를 함께 맞추어 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승범(3학년)군은 말했다.

배려와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연주하는 관현악반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2014 학년도 대전광역시 동부 초·중학생 음악 경연대회 관악부 금상, 관현악부 은상, 2014 학년도 전국 초·중학생 음악 경연대회 관악부 은상이라는 좋은 결실을 얻어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이 행복 나눔 기부활동(사도장학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



1. 관현악반 공연
2. 진로직업체험
3. 뜨개질 체험 활동

금을 수여한다. 사도장학금은 2007년 개교 당시 ‘글꽃장학회’를 구성, 매월 일정액을 교사들이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보냄으로써 사제 간의 신뢰와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하고 제자 사랑의 찰의미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교사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을 구성, 인근에 위치한 요양원인 실버랜드에 방문해 어르신들 말벗되어 드리

기, 시설 청결작업과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이에게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의미 없는 봉사만 하는 것보다 진정한 봉사정신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학기 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다 싶어서 가입했죠. 외동이라 자기만 알던 딸이 다른 사람을 돋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김지영(43) 학부모는 자신 역시 봉사활동 참여를 자랑스러워했다.

“사실 요즘 학생들은 친구와 밖에서 뛰어 놀기보다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역시 자신의 이익만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올해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나누는 방법을 배운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간다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석범 교장의 말처럼 대전글꽃중학교에서 3년간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직접 실천한 아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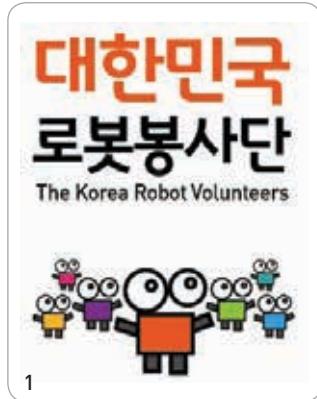
글 | 김종우 명예기자(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무관)

세상을 향한 가장 소중한 지식 나눔

‘대한민국 로봇봉사단’은 영재교육 동호회를 기반으로 “로봇을 활용한 STEAM교육을 통해 지식을 키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기부함으로써, 영재로서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나눔의 소중함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부설 영재교육원 사이버영재 로봇반을 중심으로 안산동산고등학교, 안산공업고등학교, 천안고등학교, 풍양중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생으로 구성, 한양대학교 글로벌 협력연구소와 연계하여 로봇 관련 배움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로봇봉사단’은 로봇봉사 교육, 로봇 공학 자료 개발을 통하여 영재캠프, 체험 봉사활동, 워크숍 개최, 로봇 공학 워크북 보급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봉사 스쿨은 과학기술의 종합예술인 로봇을 통한 지식 나눔 봉사 프로그램이다. 로봇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 그리고 봉사에 대한 지식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고 봉사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밖에도 평소 로봇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별 로봇관련 동아리를 개설하여 로봇 공학을 배우고 연구한다. 로봇봉사 스쿨 및 로봇 동아리 활동을 통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실을 열어 로봇의 기초 원리와 프로그래밍 기술을 나누고 공유하며, 로봇 공학 관련 직업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재능기부가 이루어진다.

2011년 5월 대한민국 로봇봉사단 조직



1. 대한민국 로봇봉사단 로고
2. 로봇 공학을 배우는 직업체험교실
3. 캄보디아 시소폰 로봇봉사 활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8월 몽골에 있는 울란바타르대학 중·고 부속학교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2012년 5월에는 로봇 멘토교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꾸리고, 그 해 7월에는 대한민국 로봇봉사단과 몽골 교육과학부 사이에 로봇 교육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올해에도 몽골에 가서 로봇봉사단 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 이외에도 지난 2013년 1월에는 중국 (닝보)의 애심초등학교에서, 8월에는 캄보디아 시소폰에서 학생들을 위한 로봇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로봇봉사단’은 왕성한 해외 봉사활동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키우고 있다. 송명훈(안산공고) 지도교사는 “대한민국 로봇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로봇 공학에 대한 배움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통하여 로봇 지식을 나누는 뜻 깊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활발한 교류로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현재 ‘대한민국 로봇봉사단’은 직업체험 교실, 국내외 로봇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로봇봉사 활동을 위한 학생 연수 개발, 몽골 학생들 험스테이 문화행사 지원, 몽골로봇대표팀 초청을 통한 FLL로봇대회 참가, 로봇봉사 스쿨 및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 | 양지훈 명예기자(안산공고 교사)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의 융합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학 인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 F1 스팀 페어(STEAM FAIR) 2014’ 대회가 열렸다. 경기도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3D프린터를 기반으로 공학과 마케팅이 결합된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행사다.

예봉중학교, Smart&Steam, AU-TODESK가 주최로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지원한 69개 팀 가운데 예선 심의를 통과한 총 23팀이 선발되어 STEAM 프로젝트 활동을 펼쳤다. 본선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에는 ‘디자인 데이(Design Day)’를 열어 해당 분야의 전문기를 초빙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다. 4가지 세션을 구분하여 CEO교육(프로젝트 관리, 프레젠테이션 교육, 창업 아이디어), 엔지니어 교육(3D프린터 실습, 가상 풍동 분석), 디자이너 교육(산업디자인 특강, 3D 모델링 교육), 마케터 교육(사회적 기업과 기업가 정신, 소셜펀딩) 등을 실시해 참가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형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지속가능한 마케팅’ 종목이 바로 그것이다. 팀마다 마케터를 구성, 마케터는 팀 홍보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는 한편, 후원을 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케팅 분야를 담당한 양성혁 교사(퇴계원중학교 사회과)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기술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중



1. 경연 부문 창의적 발표

2. 경연 부문 경주 토너먼트

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마케팅 기법, 나아가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식까지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이는 곧 STEAM에서 추구하는 융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크레이티브 데이(Creative Day)’를 열고 학생들을 위한 7주간 프로젝트 활동을 마친 한편, 이번 본선 대회를 통해 신출된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평가가 이뤄졌다. 경연 부문은 △창의적 발표(F1 자동차의 컨셉부터 제작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 활동 과정에 대한 발표), △혁신 디자인(회사의 컨셉에 맞는 자동차 디자인, CAD의 완성도 및 디자인 프로세스), △공학적 설계(규정에 맞는 설계와 제작, 풍동실험을 통한 공학적인 완성도), △지속가능한 마케팅(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후원, 홍보 마케팅을 통한 예산 운용), △경주 토너먼트(드래그레이스 20m 트랙 위에서 스피드 경주를 통한 레이싱 경연), △소통과 협업(역할 분담과 팀 워크, 지역사회 및 전문가와의 소통 능력) 등 총 6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회를 기획부터 총괄 운영한 최경철 교사(예봉중학교 과학과)는 “이 융합프로젝트 경연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자원을 관

리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과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적성 및 진로 선택에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획과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본선 대회의 그랑프리(한국 산업기술 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상)는 Fiume팀(용인 신촌중)과 비상팀(장안고)에게 수여되었으며, 6개 부문의 팀 수상과 2개 부문의 개인 수상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그랑프리를 차지한 장안고 비상팀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팀원들 간의 협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잘 풀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과학·사회적 지식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까지 배워가는 좋은 대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글 | 한은경 명예기자(소래고 교사)

인천 행복교육 커뮤니티 ‘징검다리’ 출범

2014년 11월 8일, 인천 행복교육 커뮤니티 ‘징검다리’가 출범했다. 징검다리는 인천 계양구 지역 사회의 교육 커뮤니티로서, 학교 울타리 밖에서 학교와 교육시설 못지않게 지역사회와 학부모, 지역 주민의 역할이 아이들의 교육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창단되었다. 크게는 교육 사업과 봉사라는 두 개의 틀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진다.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사업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역사 및 문화 탐방을 개발하여 지역 문화의 특색을 알림과 동시에 교육적 의미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인천 지역 소재 대학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초·중등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한다. 셋째, 학교별 순회 강좌로

‘해피스쿨’을 운영해 실제적 학교의 교육 모습을 알아보고 현장에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의 교육이 학교와 학생의 작은 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이번 커뮤니티의 창단은 지역 사회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고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징검다리 봉사단을 구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교 안전 문제, 학교 급식, 학생 복지 모니터링, 어르신센터, 교복 및 교육관련 물품 물물교환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부모님,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리는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징검다리 창립총회

지역사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인천교육으로 바뀌어 가기 위해 학부모의 의식 변화와 참여, 사회의 관심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천교육의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본다.



글 | 양진 명예기자(인천신청초 교사)

경남 중학생 독서토론캠프 참관기

지난 11월 8일 경남 김해시 진영중학교에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중학생으로 구성된 독서토론캠프가 열렸다.

경남 독서동아리 체험활동 거점학교 운영 담당자인 황정혜 교사는 이날 캠프를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습득하고 독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캠프를 운영했다.”고 했다.

이 날의 일정이었던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영중학교에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오전에는 자기소개에 적용한 ‘포

토 스탠딩’을 시작으로 톨민 실용 논리를 활용한 논리적 글쓰기 방법,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 교육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1:1 토론인 하브루타를 익혔다. 오후에는 게임식으로 풀어나가 토론의 흥미를 높이는 물레방아 토론과 한국형 세다(CEDA) 토론을 익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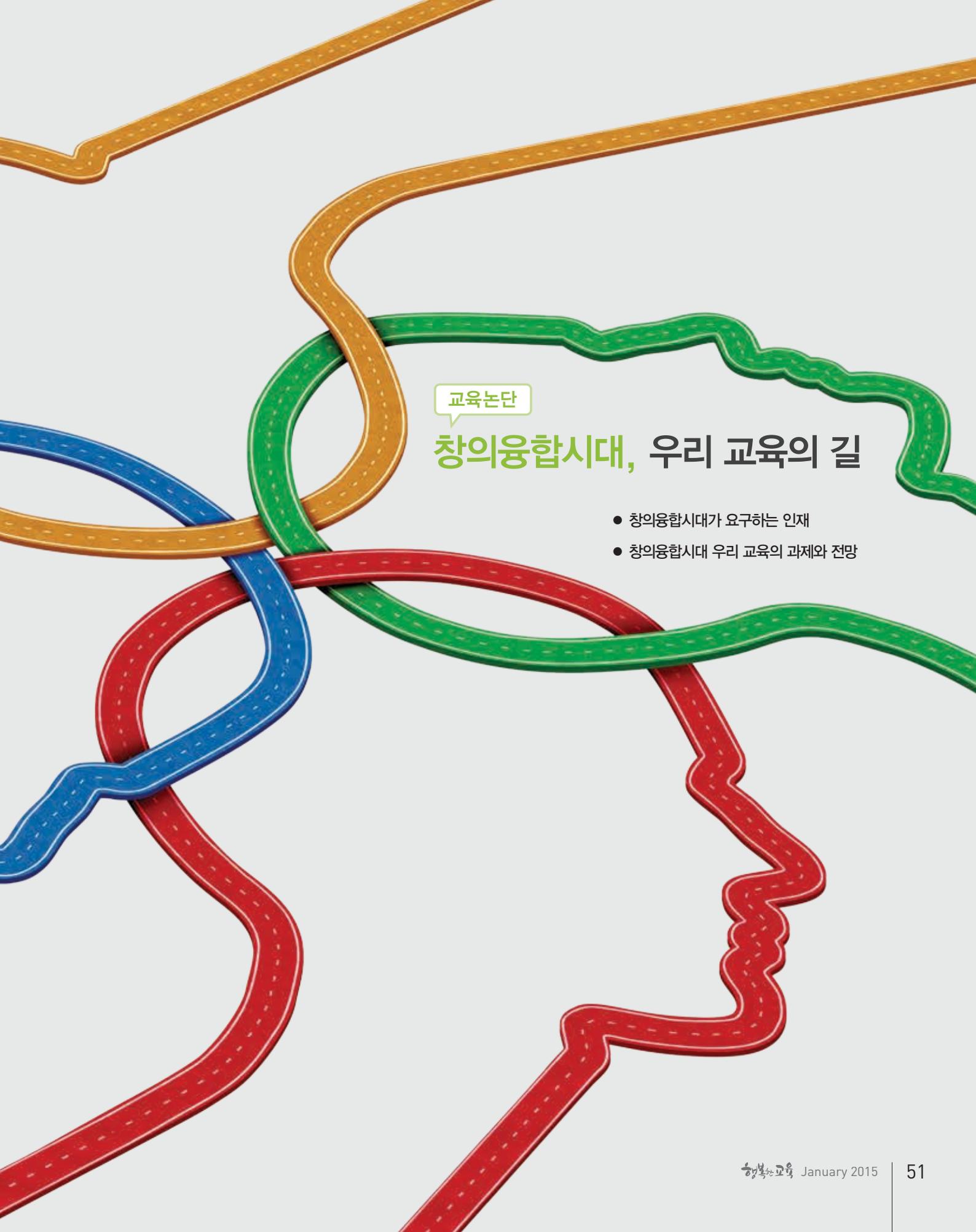
이렇듯 다양한 생각들을 독서토론캠프를 통해 우리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너무나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토론을 마치면서 토론판의 느낀 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몇몇 아이들이 자신은 중학시절이 다된 이 시점에 이런 독서토론판가 열려 무척 아

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독서토론판을 기획하고 주재한 경남김해진영중학교 황정혜 교사는 “처음 열리는 독서토론판임에도 우리 학생들의 열정에 감복을 받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독서토론판을 개최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❶



글 | 이하성 명예기자(학부모)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의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논단

창의융합시대, 우리 교육의 길

- 창의융합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 창의융합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와 전망

창의융합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글 |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30여 년 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 196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시까지는 경제 발전을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위의 네 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는 특별히 앞서 나갔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아시아의 용들은 선진국들이 이룬 산업화의 성과를 부지런히 따라갔고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 걸렸던 산업화를 불과 몇십년 만에 이루어냈다. 결국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란 '성공한 추격자'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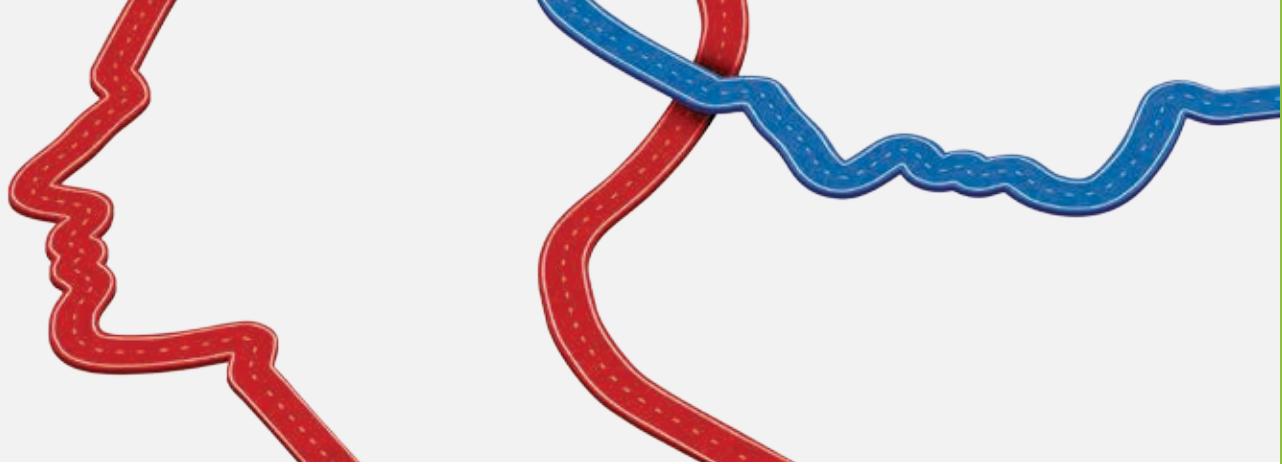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을 뒤따라가기만 하는 나라는 아니다. 때로는 선진국보다 한걸음 앞서 나갈 때도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이라거나 "세계 시장 1위" 같은 표현은 부풀려진 광고 문구가 아니다. 지난 몇십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선진국을 따라간 결과 어떤 분야에서는 어느새 우리나라가 맨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빨리 따라가는 나라, 'first follower'에서 벗어나 맨 앞에 나서는 나라, 'first mover'가 되어야 할 때라고 한다.

왜 창의융합형 인재인가?

쫓아가는 것과 맨 앞에 나서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등산에 비유하면 개척된 등산로를 따라가는 것

과 숲을 헤쳐 처음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것의 차이다. 확인된 등산로를 따라가면 체력, 날씨 등의 다른 어려움은 여전히 남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아무도 올라 본 적이 없는 산을 맨 앞에서 오르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매순간 결정해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first mover'가 되는 것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매순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들 말한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수많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있었다. '창의'는 무엇인가 쓸모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모든 활동에 쓰는 말이다. 그리고 '융합'은 무엇인가 이미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합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창의융합형 인재란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며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를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해부학과 그림, 조각을 융합하여 사실적이고도 위대한 예술작품을 남겼다. 뛰어난 수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은 신비주의의 일종인 연금술 연구에서 서로 떨어진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란 힌트를 얻었고 이를 수학적으로 풀어내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성했다. 아주 가깝게는 스티브 잡스가 따로 발전하던 인터넷 기술과 이동통신 기술을 하나로 녹여낸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았다. 말하자면 창의융합형 인재는 역사를 통해 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새삼스럽게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란히 또는 앞서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물건을 생각해내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하는 단계다. 그래서 그 일을 해 낼 창의융합형 인재가 많이 필요해진 것이다. 둘째,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적절한 사회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은 대부분 선진국 따라잡기에 잘 맞도록 만들어졌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방식들이 선진국을 넘어서야 하는 숙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그래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그에 맞는 새로운 사회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상 '개인'과 '인재집단'

21세기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상은 개인과 네트워크 또는 조직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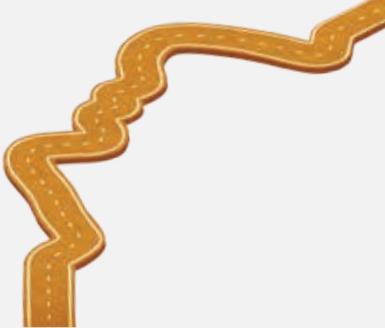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을 뒤따라가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때로는 선진국보다 한걸음 앞서 나갈 때도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빨리 따라가는 나라, 'first follower'에서 벗어나 맨 앞에 나서는 나라, 'first mover'가 되어야 할 때라고 한다.

개인으로서 창의융합형 인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처럼 한 명이 여러 분야를 학습한 뒤 각각을 잘 융합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낯선 것에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해 다양한 경험이 강조된다. 또한 사회는 같은 것과 다른 것

을 구분짓는 기존의 경계를 잘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다른 영역에서 온 사람을 대놓고, 또는 은근히 차별하거나 이를 바 '끼리 문화'를 통해 외톨이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분야 전문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에 의해 창의융합 활동이 일어나는 이른바 창의융합형 인재집단이다. 정 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역설적으로 개별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개인이 여러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결과 전문성에 기반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시도가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개별 전문가들이 융합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역할이다. 과거에 우리가 융합을 표방하면서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에도 실질적인 융합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러한 ‘엮어주는’ 역할을 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창의융합 활동 조직하고 이끌

‘코디네이터형 인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결과를 만들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을 엮어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획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잡기 시대에는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 따라잡기 를 넘어서려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주어진 문제가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시도해 보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팀을 짠 후에는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 결과 나타난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융합의 아이

콘이 된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자. 아이폰의 등장에서 잡스의 역할은 ‘정보와 통신을 결합한 손 안의 기기’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애플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잡스 혼자 아이폰을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를 짜고 터치스크린을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

람이 있을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는 열린 태도를 가진 전문가들과 이들을 창의융합적으로 엮어내는 코디네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한 분야에 빠져드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다양하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 시도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가 중요하다는 말을,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이해하면 큰 실수다. 창의융합형 성과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인재가 모두 필요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분야별 전문가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엮어서 창의융합 활동을 조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코디네이터형 인재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다. ❷

창의융합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와 전망

글 | 이태우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인류의 대변혁, 창의융합시대 도래

예전부터 인간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농경 및 유목사회가 시작되면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그 후 과학의 발달로 보다 진화된 사회를 이루었다. 1760년대에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농경 사회보다 복잡한 형태의 사회구조를 갖는 공업사회가 시작된다. 그 후 급속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들은 곧바로 과학과 산업으로 이어져 인간에게 편리한 많은 도구와 제품들을 양산하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지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또 다른 대변혁을 맞게 된다. 바로 디지털 혁명이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파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컴퓨터를 비롯한 IT(정보기술)의 융합(convergence)기술과 함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합친 개념이 아닌 통섭(consilience)을 통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융합은 기존의 것을 단순히 합치는 통합의 개념을 뛰어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은 만들어내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자동차 산업은 기계공학적 접근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디지털 요소가 첨가된 융합적인 스마트 자동차가 대세다. 의학 분야에서도 과거 단일 진료 체제를 탈피하여 사람의 몸 전체를 놓고 진료하는 복합 진료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창의융합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 애플(Apple)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다.

그는 창의융합시대의 최고(最高)의 롤모델로 지목되고 있다. 그를 만든 것은 바로 창의력과 도전정신, 실패와 좌절을 거치면서도 끊임없이 만들어낸 창의융합적인 아이디어다. 이러한 힘으로 회사를 창설한지 불과 30여 년 만에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흔히 거시경제학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거론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해당 기업의 주가총액이다. 기업의 주가총액과 국가 총생산량(GDP)과 비교해봤을 때 애플 회사의 주가총액은 국가 총생산량 세계 17위 국가인 스위스와 거의 비슷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국가 총생산량 세계 15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95퍼센트 이상을 애플이라는 한 회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변화! 통합적 교육체제 개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교과서들은 대부분 지식을 개념으로 전달하는 단일 교과 체제(uni-discipline)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중심의 복합 교과 체제(multi-discipline)이다.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가 단순히 역사 개념만 한정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과 기술 환경도 소상하게 기술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역(逆)으로 과학 교과서 역시 어떤 개념이 나올 때마다 역사 상황과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과서가 단일 교과의 벽을 넘는 것을 상당히 인색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교

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TEAM 융합교육은 단일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 중심 수업환경에서 이를 내실 있게 실천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교과 중심 단일 교과 체제를 복합 교과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 이기주의를 넘어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교과와 인접 학문과의 교류, 소통과 조정을 통해 융합하는 정신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학교체제를 통해 창의인재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영국 및 스웨덴에서 추진하는 아카데미 학교와 프리 스쿨(free school)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불기 시작한 문·이과 융복합 교육체제와 여름, 겨울 방학에서 탈피한 계절 방학제 실시, 그리고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운영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교육과정 개편, 유연성 있는 교육체제의 변화, 학교의 자율성 확보 등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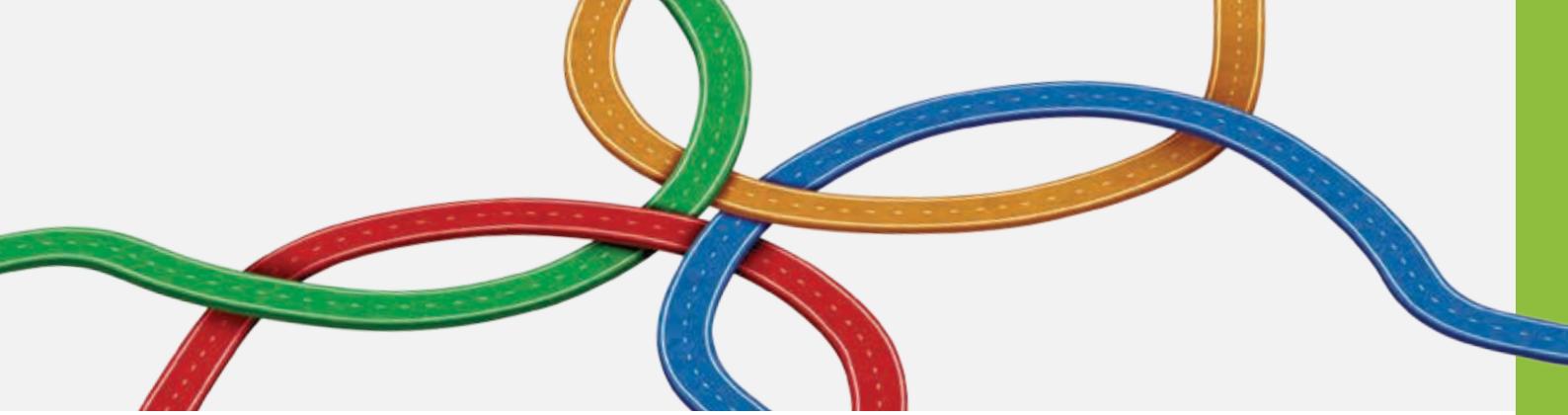
학교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수업

하루가 다르게 사회는 변화하지만 학교는 변화가 상당히 느린다. 컴퓨터, TV 등 디지털기기가 보급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학교가 정해진 단위수업시간, 제한된 교실, 주어진 교과서대로 공부를

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분절된 교과수업,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기 급급한 수업, 정답만을 요구하는 수업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 수 없다.

이는 교사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교과를 넘어 현실과 연관된 통합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주제중심, 프로젝트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수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 간 교사들의 교류 및 연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앞서 업무 및 행정 중심의 학교 문화에서 학생 및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는 바로 그러한 학교, 그리고 수업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학생의 행복이다. 우리나라 PISA 국제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지만, 공부에 대해 갖는 흥미와 자신감은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수학의 경우 한국 학생들의 성적은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가운데 1~2위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수학에 대해 갖는 흥미도는 분석 대상 40개국 중 31위, 수학이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다고 믿는 정도는 38위였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바로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융합 인재가 될 것이다.



창의융합시대! 독서와 토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힘

창의융합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보다 독서다. 독서는 우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 상상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그리고 배경지식 등을 습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독서다. 창의력은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의 토대로 만들어진다. 해리포터 저자인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많은 상상을 일깨워 주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권해야 한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은 토론 교육이다. 토론은 단순히 대화와 소통을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뛰어 넘어 적절하고 중재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태인들은 짹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다. 유태인 아버지들이 수천 년간 실행해온 교육을 통해 토론 교육의 중요성을 재발견 할 수 있다. 전 세계 유태인 수는 전 세계인구의 0.02% 비율이지만 지금까지 받은 유태인들의 노벨상 수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 전체의 22%가 된다. 2013년 노벨상 수상자 12

명 중 6명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유태인 교육의 장점을 새겨 봐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전문 프로그래머로 키우자는 뜻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며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다. 이러

창의융합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보다 독서다. 독서는 우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 상상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그리고 배경지식 등을 습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독서다. 창의력은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의 토대로 만들어진다.

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벌써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함양을 위해 국가 표준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능력으로 등장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복잡한 실생활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객관화시키는 새로운 교육 트렌드가 되고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전 국민들의 창의인재 육성에 대한 글로벌한 의식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창의융합시대에 각 분야에 걸쳐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

“욕설·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Q

반 아이가 학교 선배에게 꾸준히 욕설을 듣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건 아니지만 자주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학 때도 휴대전화나 SNS로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내뱉는다고 하는데요. 신체적 피해 없이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나요?

A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주를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욕설이나 위협 전화나 문자와 같은 사이버 상의 욕설도 명백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자에 따라 폭력 유형을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관계적 폭력으로 구분하는데, 70%는 언어적 폭력에 속한다고 합니다.

욕설·사이버 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

교폭력 피해율은 초등 1.8%, 중학교 1.1%, 고등학교 0.6%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2012년 2차 조사의 초등 11.1%, 중학교 10%, 고등학교 4.2%에 비해 피해 응답률의 감소폭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4%), 집단 따돌림(16.8%), 폭행(11.8%), 스토킹(10.1%), 사이버 괴롭힘(9.9%), 금품갈취(7.6%), 강제 심부름(4.4%), 추행(4.0%)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지만, 학교급이 낮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다는 것과 가해학생의 23.3%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일수록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과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통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중·고생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원인이나 심각성에 대해 교육주체 간의 인식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학

부모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집단 괴롭힘(35%), 언어폭력(21%), 괴롭힘(17%), 신체폭행(11%) 순으로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언어폭력(29.4%), 괴롭힘(28.4%), 집단 괴롭힘(19%) 순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책임 소지에 관해서는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 지도 시간이 부족(37%)하고,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23%) 때문에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사의 소통과 교감능력에 문제가 있다(32.8%)고 응답하여 학부모와 교사 간에 학교폭력에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한 핵심 교육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도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인식차이와 책임 떠넘기기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

우리 모두는 학교폭력이 감수성이 민감하고 자아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의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한 일회적이거나 한시적인 정책 추진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육주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책, 절차,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구비한 미국과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략으로 채택한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집한다. 둘째, 학교와 학급에서 폭력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셋째, 학교의 교사들이 폭력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시킨다. 넷째,



째, 학교 전체가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특히, 운동장이나 식당처럼 관리가 느슨한 곳의 감독을 강화한다. 다섯째, 폭력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가시적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아이들에게 인간성의 회복, 배려, 친절, 교감, 시민의식, 책임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덕목에 대한 교육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도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인간의 기본 법칙은 상호의존성이다. 한 인간의 존재는 다른 인간들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나만의 ‘비밀병기’를 가져라



나의 하루는 음악으로 시작된다. 아침을 조금 일찍 챙겨 먹고 학교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3층 음악실로 가서 우쿨렐레, 악보 등을 챙기며 아이들을 기다린다. 조금 있으면 재잘재잘 아침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음악실로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인사하며 하나둘씩 들어온다. 그 아이들과 함께 서툴지만 씩씩한 우쿨렐레 연주를 하면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9시 등교가 시행된 이후 우리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우쿨렐레를 내가 직접 가르치기로 했다. 드럼치고 기타 연주하는 교장선생님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내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악기 연주 중간 잠시 숨을 고를라 치면 조잘조잘 재잘재잘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는 통에 나에겐 잠깐의 쉴 틈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우쿨렐레를 배우는 것보다도 교장 할아버지에게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이 더 즐거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잠시 학교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동네 할아버지라는 이름표를 단다.

음악으로 소통하기

고양시에 있는 고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안곡초등학교에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지도 벌써 4년째. 공모교장으로 첫발을 내디디면서 했던 다짐 중 하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거였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기에 제일 먼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장이라는 아우라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그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 음악만한 게 없다. 평소의 내 지론이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내가 준비했던 건 음악이었다. 베네수엘라의 힘들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었던 ‘엘 시스테마[El Sistema]’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시작은 교사들과 함께였다. 교사들이 나의 생각을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나가지 않는다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여 교사들에게 이런 나의 생각과 비전을 들려주고, 프로젝트에 동참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밴드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교육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안곡의 음악을 좋아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 밴드가 만들어졌고, 부족한 실력이 나마 그들의 연습을 돋고 그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보여줄 공연을 준비하였다. 언제나 근엄하던 선생님들이 고깔모자와 반짝이 옷을 입고 나와서 흥겹게 연주하는 음악들. 그것은 학생들에게 놀라운 문화적 충격을 주었고,



1

2

1.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우쿨렐레 연주
2. 학생들의 암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사 밴드의 공연 모습

학생들과 교사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과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교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 주었다.

학생들과의 음악적 소통을 위해서 5~6학년 학생들로 드럼반(사실 드럼반 학생들은 각 반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만들었다)을 만들었다. 아침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쥐는 법, 기본적인 리듬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가르쳤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교사들도 교장인 내가 왜 그 학생들에게 훈육이나 상담이 아닌 드럼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의아해 하는 분위기였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음악을 통해 그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는 내 계획은 일견 현실과 맞지 않고 겉멋만 잔뜩 든 이야기로 보였으리라. 하지만 드럼을 가르치는 일이 세달 남짓 꾸준히 지속되면서 서서히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드럼반 아이들의 학급 담임교사에게서 시작되었다.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차츰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의욕이 없어 대충대충 참여하던 수업에서도 전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말들이 들려왔다. 학급 담임교사들의 말처럼

바뀐 학생들의 태도는 연습에서도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연습에 평계를 대고 자주 빠지던 학생들이 언제부턴가 틈만 나면 드럼 스틱을 쥐고 연습실로 모여들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대신 스틱을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드럼 연습으로 전교생 앞에서 연주를 하고, 학생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학급에서 문제학생이었던 그들은 어느새 또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기피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드럼이 학생들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었다면 연습을 하는 틈틈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주억거리 주곤 했었던 일들은 그들과 나의 소통이었다. 그저 동네 할아버지처럼 들어줄 뿐 그들의 고민에 대해 무엇 하나 도움되는 말을 해 주지도 못하는 나에게 그 녀석들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꾸벅 하곤 했다.

드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는 별도로 전교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악기를 골라 틈틈이 연습하고, 한 달에 한번 함께 합주하는 '1인 다악기'라는 프로그램이다. 전교생이 함께 하나의 곡을 연주하면서 모두가 하나되는 체험을 하고, 또 음악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자는 취지로 도입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의 특색으로 자리 잡아 인근 학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미디어의 취재도 참 많은 편이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교사 밴드를 하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이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참신한 음악지도 방법들을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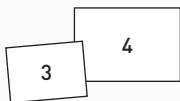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학교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과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교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의 모든 요식적인 업무와 절차들을 없애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이 진행되어서는 교사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고, 교사들과의 간담회도 마련하고, 업무 개선을 위한 협의도 자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런 공식적인 간담회나 협의들만으로는 교사들의 생각을 모두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운동과 음악이었다. 근무 후에 희망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기타 연주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규 교사와 저경력 선생님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공사석 가리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지 업무를 줄여 달라거나 편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 교사로서

의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궁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 지며, 학교장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비로소 명확해졌다.

요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시대라고 한다.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나의 생각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며, 그들이 학교 교육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기 위해 학부모와 직접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고,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학교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 학교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학부모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과는 별개로 맞벌이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학교 봉사활동(도서관 봉사, 아침 등굣길 교통 봉사, 급식 봉사, 학급 청소 등)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한 후 가능한 것들부터 과감하게 없애 굳이 학부모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일들로 학교에 억지로 나오는 일들을 줄여 나갔다.

지난 여름 고양시 원마운트 야외 광장에 기타를 닮은 악기 우쿨렐레를 품에 안은 연주자 10명이 옹기종기 모여 연습을 하고 있었다. 우쿨렐레를 든 10명의 범상치 않은 연주자들의 모습에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조금은 긴장한 듯한 그러나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현을 티기며 그들의 연주가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훌륭한 연주에 시민들의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긴장한 9명의 여성 우쿨렐레 연주자 한 명에 제일 신이 난듯한 유일한 남성 연



3. 학부모참여지원센터 행사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한 우쿨렐레 교실 학부모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 최종경 교장
4. 일 년 동안 틈틈이 연주했던 곡들을 운동장에 모여 다함께 연주해 보는 시간, 작은 음악회



주자가 연주를 리드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 지난해 3월에 결성되어 겨우 6개월 남짓 연습한 실력이지만 마음가짐만은 전문가 못지않은 학부모 연주단을 이끌고 용감하게도 학교 밖으로 나들이 공연을 나선 것이다.

사실 학부모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였다. 시작은 정말 소박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교장선생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악기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학부모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부모 드럼 교실을 열어 음악실에서 일주일에 2~3번 학부모들에게 연주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내가 전문적인 연주 실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열심히 하는 아줌마 연주단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연주 요청이 들어오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소통에 중점을 두고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나도 학부모 연주단과 함께 노인대학에 가서 2번이나 연주를 했고, 이런저런 교육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해야만 했다. 처음엔 너무 크고 먼거로워진 일 때문에 고민도 했었지만 아들 앞에 자랑스러운 엄마로 서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며, 이것 또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다.

내가 행복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처음 안곡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가졌던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재잘대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내가 즐겁고, 추운 아침부터 음악실에 모여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졸업식에 있을 공연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즐겁고, 아이들 학교 보낸 후 오전에 잠깐 짭을 내 자신만을 위한 연주를 하는 학부모들이 즐겁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가 아니겠는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가, 아이들이 언제나 학교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건네고, 그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들으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통 아니겠는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목적과 구호 아래 우리 아이들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보다 학교 구성원 하나하나가 음악으로 하나 되고, 또 음악으로 소통하여 즐거운 우리 학교가 나는 좋다. ②

겨울방학을 알차게 만드는 ‘진로체험’

요즘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학년말 풍경은 매우 분주하다. 예전에는 2학기말고사를 비롯해 1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하고 차분하게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진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년말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는 새로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학급별 나의 꿈 발표대회’, ‘동아리별 커리어멘토를 찾아가는 진로탐색의 날’, ‘졸업생 선배와 함께 하는 진로캠프’, ‘학부모와 함께 하는 꽃동네 봉사활동’ 등의 행사가 줄지어 있다.

학년말이 되면 학생들은 또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선생님! 저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잘 하는 것을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라고.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다가 대답대신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진로교육의 미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제는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진로체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체험을 위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학생들 스스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설정한 꿈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과 학교특성을 고려하면서 기준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진로체험을 하면 좋을까? 그 기준을 함께 찾아보자.

첫째, 〈진로심리검사의 추천 직업〉을 기준으로 한다.

커리어넷에서는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H형, K형),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 5가지의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검사결과표에서는 적성, 흥미, 가치관에 따른 추천직업을 안내하고 있다. 자신이 무

엇을 할지 막연해 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천직업을 중심으로 몇 명의 친구들과 소집단을 형성해서 체험을 하면 좋다.

둘째, 〈롤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진로활동 수업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은 학생들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학기마다 학급별로 모든 학생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준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롤모델에 대해 조사하고, 롤모델을 설정한 이유, 롤모델에게 배울 점, 롤모델처럼 되기 위한 노력 등을 발표한다. 그리고 반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진로탐색에 참고한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롤모델과 연락하기’라는 주제로 진로체험 기회를 갖도록 할 생각이다.

셋째, 〈꿈〉을 기준으로 한다.

2학기말 1학년 모든 반에서는 〈나의 꿈 발표〉를 한다. 1년 동안의 진로탐색과정을 PPT나 Prezi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는다. 보통 발표 자료에는 자기이해, 직업탐색, 롤모델, 학과탐색, 대학탐색, 진로설정, 진로준비, 버킷리스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학년말에는 〈나의 꿈 발표대회〉를 통해 본선 무대에 진출한 20명의 학생들이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꿈을 프레젠테이션 한다.

넷째, 〈동아리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진로체험에서 가장 큰 제한점이 규모다. 학교단위나 학급단위는 너무 크고, 개인단위는 너무 작다. 이를 절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동아리단위의 규모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교에는 69개의 동아리가 있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진로와 연계된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의 기본 취지도 동아리단위로 진로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에서 탐색한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체험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깊이 있고 알찬 경험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진로탐색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업특강을 자주 열고 있다. 초기에는 강당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학년단위로 한 명의 강사를 초청해서 듣는 대규모의 특강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급단위로 듣는 소규모의 특강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둔산여고의 경우 1학기에는 <커리어멘토를 초청하는 진로탐색의 날>을, 2학기에는 <커리어멘토를 찾아가는 진로탐색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1학기에 초청한 직업전문가들의 직업특강을 듣고, 2학기에는 그들의 직장을 찾아가 직업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적용해본 기준 가운데 가장 추천하고 싶다.

여섯째, <학과탐색과 대학탐색>을 기준으로 한다.

진학이 빠진 진로는 알곡 없는 쪽정이에 불가하고, 진로가 없는 진학은 방향성이 없어 위험하다고 한다. 결국 진학은 진로의 부분집합이다. 진로탐색에서 학과탐색과 대학탐색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전둔산여고에서는 올해 열 번의 대학탐방을 다녀왔다. 40명 단위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탐방을 통해 학과탐색과 직업탐색의 기회

를 가졌다. 특히 대학생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과와 대학이 진로탐색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일곱째, <버킷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2007년 잭니콜슨과 모건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영화를 본 교사들은 교육활동에서 이 영화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진로활동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았다. 요즘은 학교마다 <진로캠프>에서 단골메뉴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버킷리스트 작성이다. 학생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행복해하고 자신의 꿈을 자연스럽게 담게 된다.

여덟째, <독서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기에 꿈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방법이 독서가 아닐까. 책 속에는 스승도 있고 롤모델도 있다. 그래서 대학입학수시전형에서 독서활동을 강조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여덟 가지의 진로체험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이 외에도 TV프로그램, 공연, 행사, 직업전망, 통계자료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모이면 다음은 체험의 기회를 주면 된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체험자원을 수집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부(www.teachforkorea.go.kr)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들어간 기관이 체험자원이 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찾아야 한다. ☺

“말해봤자 모를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님, 선생님 말씀이라면 귀를 쫑긋 세워 듣고,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고 싶어 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왜 그리도 소통하기 힘들어 지는 것일까.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소통의 본래 뜻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와 '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소통의 스킬들을 익혀야 한다. 소통은 사실, 쉽지 않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흔히 아이가 부모나 교사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황을 두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헌데 그 상황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소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은 너와 내가 함께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나'는 '나'의 생각을 알려 주고 '너'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역방향의 변

화도 함께 일어나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의견만을 '너'에게 강요하여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일방통행식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기업의 사장이, '기업 내 소통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사내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키고, 간담회도 열고 소통 공모전도 자주 개최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여전히 사장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고수하며 직원들의 변화만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통은 나와 대상 모두가 함께 변화하려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에게만 변화를 강요하고, 부모와 교사 자신은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고수하려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가 먼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주체는 사실,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쉽게 던지는 자아 탐색 질문들이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쉽지 않다. 소통에 있어서 '너'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너', 청소년

청소년 시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는 주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사춘기'를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대다수는 주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주체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주체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주변 환경이 더해져 아이들은 불안과 짜증을 자주 느낀다.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의 일방통행식 대화 시도를 자신의 주체성을 해하려는 위협 행위로 받아들이곤 한다.

어른들의 '대화 시도'를(아이들은 위협으로 느낌) 차단하려는 태도는 자신의 주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나름의 생존 전략이다. 어른들의 접근 시도 자체가 '위협'으로 인식될수록 청소년과의 소통은 어려워진다. 청소년을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그저 통제, 지도의 대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청소년은 분명 아직 미성숙한 존재다. 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그네들의 주체성을 존중해 주어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잊고 살아왔던 '나'에 대한 이해

교사와 부모는 얼마나 '나'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까. 교사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소통 특강, 진로 특강을 진행할 때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

지씩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가요?", "삶의 가치관 중 가장 중요하다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선뜻 대답하는 학부모, 교사들을 많지 않았다. 청소년들에게는 쉽게 던지는 자아 탐색 질문들이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쉽지 않다. 소통에 있어서 '너'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깊은 자아 이해를 갖춘 어른을 멘토로 삼고 싶어 한다. 반대로 자기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진정성 없이, 그저 세상의 기준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어른들과 벽을 세우려고 한다.

너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끼리의 소통만큼 쉽고 유쾌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너무도 부족한 채 상대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믿은 채 나누는 과정은 얼마나 괴로울까. 늘 갈등의 씨앗이 깊게 심어져 있을 것이다. 소통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향한 변화의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나의 가치관과 사랑을 접觸하며 나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자아탐색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통은 더욱 따뜻해지고 또 그만큼 깊어질 수 있다. ❸

대한민국, 책쓰기와 사랑에 빠지다

12월 19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는 전국 600여 개 책쓰기 동아리의 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전국 독서 관련 연구회가 함께하는 가운데 '2014 전국 책축제'가 열렸다. 한 해 동안 책쓰기 동아리의 성과를 담아내는 이 행사는 특히 '대한민국, 책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슬로건과 같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책쓰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열린 큰 무대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2009년 시작된 '책쓰기 교육'은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 깊이 있는 연구, 자신만의 생각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도하는 프로젝트식 수업이다. 동아리,

학급, 학교 등 다양한 단위로 운영되는 책쓰기는 또래학생, 가족, 교사에 이르기까지 현재 참여 인원도 다양하다.

12월 19일(금) 오후 4시 30분, 책축제에 참가한 내빈 및 학생, 학부모의 전시장 커팅식과 동시에 대구의 무형문화재인 날뫼북춤으로 흥을 돋우며 개막식이 시작된다. 영상으로 보는 경과보고 이후 책쓰기에 참여했던 학생과 선생님들의 '북(book)실(實)북(book)실(實) 책쓰기 토크 콘서트'로 참가자와 함께 책쓰기에 대한 의미, 자신의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했다.

한편, 전시장 특설무대에서는 12월 19일(금)와 20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각각 전국 우수 독서 동아리와 전국

책쓰기 동아리로 선정된 34팀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20일(토)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부 주관 연구회인 전국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연구회와 독서교육콘텐츠 개발연구회의 최종 발표회도 열렸다. 그 외에도 참가자들은 체험장에는 '책놀이 공간'에서 책갈피, 미니북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북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독서에 빠지기도 했다. 책축제에 참가한 천내중 3학년 최다희 학생은 "친구들과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고, 완성된 책 속에는 나의 성장이 담겨져 있다. 책쓰기를 전국의 친구들이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활동을 알리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을 대구만의 책쓰기를 넘어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원년으로 삼고,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전국 책쓰기 동아리가 함께 하는 카페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책쓰기로 행복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 해 동안 책쓰기 동아리의 성과를 담아낸 책축제 행사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학생 스포츠캠프'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1월 29일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와 약사중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1,000여 명과 6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2014 여학생 스포츠캠프'를 개최하였다.

'여학생 스포츠캠프'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카누 금메달리스트 조광희 선수의 특별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무대마당, 전시마당, 스포츠마당, 각종 체험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무대마당은 교육장배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창작댄스 종목에서 1, 2위를 한 초·중학교팀과 울산여상 댄스팀이 공연을 펼쳤으며, 울산스포츠과학 학생들이 깜짝 출연했다.

약사중학교에서 열린 스포츠마당은 수족구, 발야구 종목의 지역 대회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초·중학교 16개 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수족구 대회는 2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지역 예선대회에 40개 학교 436명의 여학생이 출전하여 치열한 예선전을 거쳤다. 또한 발야구대회도 34개 학교, 494명의 여학생이 출전하여 본선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예선전



을 벌였으며, 창작댄스대회에도 32개 학교에서 303명의 여학생이 출전하여 기량을 겨루어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체험마당에는 최근 안전에 높은 관심을 반영한 심폐소생술, 수영 스피드왕, 사격, 양궁, 뉴스포츠 종목, 카누·카약 에르고미터, 태권도 격파, 전통놀이, 육상, 체조, 복싱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여학생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스포츠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평생체육의 기반 조성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

2014 여학생 스포츠캠프 모습

로 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구와 족구 등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출전하여 리그전을 펼치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개 종목에 398개 학교스포츠클럽팀, 6,28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12개 종목에 578개 학교스포츠클럽팀에서 8,828명의 학생이 출전하였다. ☺

‘2014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박람회’ 성황

부산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14년. 그 동안의 성과를 부산 시민 모두에게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바로 ‘2014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박람회’이다. 지난 11월 27일(목)~11월 29일(토) 3일 간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교육박람회는 일방적인 전시현장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부산교육박람회는 연구학교박람회, 진로박람회, 직업교육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부산교육 정책의 성과와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학교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진로·진학 정보, 직업교육 체험 등 학

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교육 참여 또한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부산교육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행사 첫날인 27일(목) 10시 30분, ‘반송중학교 난타 공연’의 북소리가 박람회의 시작을 알렸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대표, 교사, 초청 귀빈들과 나란히 서 함께 테이프 커팅을 실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Busan Education, Hope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제관 2개(부산교육관, 부산혁신학교관), 특별관 7개(자유학기제관, 영어누리관, 토요스쿨관, 유아교육관, 특수교육관, 안전교육관, 인성교육관),

연구학교관(64부스), 진로진학관(38부스), 직업교육관(63부스)이 운영되었으며 약 280교가 참여하였다.

벡스코 제1전 시장 전시체험관

운영과 함께 제2전시장 세미나실에서는 “교육감과 학생의 대화”를 비롯하여 모두 22개 주제로 교사·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연구학교 운영 성과보고회, 명사 초청 특강, 각종 발표대회 등이 열렸다. 학생과의 대화에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141명이 참여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과 ‘내가 교육감이라면 꼭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라는 두 개의 주제를 놓고 김 교육감과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학생들은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어놓았다.

박람회 관람한 시민들은 부산시교육청 SNS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박람회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등의 참여 소감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2014년 부산교육의 정책 성과, 일선 학교의 연구 성과, 학생들의 성취물 등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인 ‘2014 부산교육박람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교육공동체, 부산시민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언을 얻어 향후 부산교육의 방향 수립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❷



현장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교육박람회

행복나눔 학부모 동아리 '동화 좋아 동화맘'

인형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집안을 예쁘게 장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인형을 통해 타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도 표출해 내기도 한다. 인형은 좋은 친구이자, 항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하다. 인형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 발달을 돋고 좋은 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으며,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창신 유치원에서 인형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의 동아리 모임인 '동화 좋아 동화맘'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인형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 자녀와 함께 인형극 관련 프로그램을 찾았던 어머니,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자녀를 둔 어머니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첫 날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사례를 상황극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녀들의 스마트폰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인형극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인형극을 위해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또한 동아리 회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쳐 '중독 괴물'이라는 인형극 대본을 완성하게 되었다. 대본을 완성한 후에는 등장인물의 성격 분석하기, 발성 연습하기, 다양한 종류의 인형 조작해보기 등 인형극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동아리 수업 종료 후에도 함께 모여 대사 연습은 물론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점자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녹음하는가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공연에 필요한 소품을 집에서 직접 만들 어오겠다고 자원할 정도로 어머니들의 참여는 적극적이다. 이런 열정으로 12월에는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할 예정이다.

동아리 회원 중 한 어머니는 "처음에 학부모 동아리에 올 때 강의를 듣

는 줄 알고 볼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다양한 놀이로 배우고 실제 인형을 조작해보면서 인형이 가진 매력에 끌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유아교육진흥원에 정말 감사 드려요." 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가슴 벅찬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미래는 어머니의 문화가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직접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머니의 감성문화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정서지수를 올려 줄 수 있다. 성장 기에 어머니는 아이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

인형극으로 교육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어머니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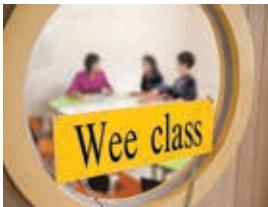
NEWS BRIEFING

2015 희망사다리장학금 200억 편성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정부예산을 100% 증액된 200억 원으로 편성,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 해 1학기에 695명, 2학기에 833명을 선발해 모두 1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취업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2014년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경쟁률은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1,735명에게 100억 원을 지원, 이중 2014년 2월 졸업한 학생(1362명)의 91.2%(1242명)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위기학생 지원체계(Wee) 희망대상 시상식 개최



Wee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하여 교육부는 12월 17일 한국교원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제4회 「Wee희망대상」 시식을 개최하고,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교사·기관을 격려하였다.

「Wee 희망대상」은 Wee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학생, Wee클래스·센터의 상담실 운영 등에 헌신한 지도교사, 기관 부문 우수사례와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국민들의 Wee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Wee 프로젝트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기획되었다.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향상에 주력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2015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내실화를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실당 운영비 기준 단기를 '14년 대비 약 25%p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오후돌봄은 500만 원, 저녁돌봄은 400만 원 가량 증가하였다.



또 돌봄교실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시설 노후 등으로 개보수 및 신규구축 요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녁돌봄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밖에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초등돌봄교실에서 1~2학년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3학년 이상은 기존 돌봄 참여 학생 중 학교 돌봄교실의 규모에 따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채용 원칙을 유지하고, 원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돌봄교실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여건에 따라 지역돌봄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 학부모회 등과 초등돌봄교실 연계·위탁 운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우수 운영 사례집」을 발간·보급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의 1차적 돌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영·수 난이도 조절 사교육비 경감 EBS 수능교재 어휘수·지문 등 줄여

교육부가 영어·수학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와 초·중·고 학교급별 사교육 성향을 고려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12월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사교육비·의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구모와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14년 1인당 사교육비(23만 9000원)와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34만 7000원)는 오히려 2013년 대비 각각 3000원, 7000원씩 증가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65%를 차지하는 영어,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교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영어는 학교 영어교육 질이 높아지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인 EBSe, 영어동아리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EBS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 수는 2014학년도 기준 5668개 단어에서 교육과정 수준인 2988개 단어 안팎으로 2017학년도까지 조정하고 난이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추상적인 내용, 복잡한 문법 등의 지문도 줄인다. 수학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학습량과 내용이 조정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학년도부터 꼭 배워야 할 기본원리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초·중학교 학교급간에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위한 교내 수학클리닉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학교급별 사교육 수요를 고려한 대책도 마련됐다. 초등학교는 보육 관련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학생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창조경제 선도할マイ스터고 선정

창조경제를 선도할 S/W와 식품품질관리 분야의 영マイ스터가 양성된다. 교육부는 12월 18일 달성정보고(소프트웨어 분야)와 영천상업고(식품품질관리 분야)를 10차 마이스터고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 달성정보고는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를 잇는 두 번째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이다. 이 학교는 인력 수요가 많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고졸 인력 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경북 영천상업고는 식품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식품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폐경제교육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10일 『교육기부 활성화 및 화폐경제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조성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조폐공사만의 특화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화폐 경제 교육 분야의 진로·직업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조폐공사는 자체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화폐박물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화폐 경제교육은 물론, 화폐 제조 역사 및 화폐 관련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화폐 경제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NEWS BRIEFING

나도 오늘 하루는 교육부 공무원!

공무원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 공무원 진로·직업 체험이 열렸다.

교육부는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년말 꿈·끼 탐색주간(미니자유학기제)을 활용하여 진로탐색과 체험을 지원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14 교육부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실시하였다.

본 행사에는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시(구 조치원읍)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중 미래의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 40명이 참여하여, 1:1 공무원 멘토와의 인터뷰, 멘토가 근무하는 부서의 1일 업무 체험이 진행되며, 체험이 끝난 후 학생은 체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결과발표회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알고, 공무원의 일상과 직업적 특성 등을 이해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교육부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10회 이상 운영하고, 지자체를 포함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이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 최고! 수업이 재미있어요

교육부는 12월 11일 「제12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발표하였다. 교육부는 '03년부터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선정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표창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 실천 우수사례를 일반화해 왔다.

2014년은 「수업 방법 혁신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주제로 진행한 결과, 경남 울하초등학교(같은 제재! 다른 수업! 맞춤형 이동수업), 경기 이매중학교(학생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독서·토론·논술프로그램), 경북 경산고등학교(경비 아카데미) 등이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교복은 학교에서, 학부모는 부담 경감



교육부는 2015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결과 '14년 동복 개별구매 대비 34%, 공동구매 대비 16%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 중·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국 평균 낙찰가가 168,490원(동복 4pcs 기준)으로 '14년 개별구매 평균가 256,925원 대비 34%, 공동구매 평균가 200,506원 대비 1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하 효과와 더불어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부모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새해를 맞는 통일의 문턱,

비무장지대 체험

멈추지 않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새해가 왔다.

저 혼자 가지 않고 골짜마다 언 것들을 녹이며
함께 흐른다.

희망도 이와 같아라.

멈추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다 같이 솟아라.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암에 두고 소원을 담은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낀다.



임진각에서 바라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엔 꿈꾸고 계획하고 설렌다.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를 품고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선 적당한 긴장감도 느껴볼 일이다. 알지 못하는 시간은 알지 못하는 공간만큼이나 신비하고 때론 두렵다. 반세기 동안 누구의 발길도 허락지 않던 비무장지대(DMZ)처럼.

DMZ란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한국전쟁 발발 후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서쪽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강원도 고성의 동해안까지 155마일(약 248km)의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었다. 남북 양측은 정전협정 제1조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로부터 60여 년. 사람의 발길이 끊긴 그곳은 수많은 생명을 품은 자연의 보고(寶庫)가 되었다.

임진각에서 출발 '비무장지대 체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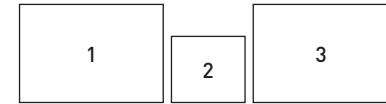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들어서면 셔틀버스를 타고 DMZ를 둘러볼 수 있다. 셔틀버스는 10~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임진각 DMZ 관광매표소(031-954-0303)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비용을 정산한 후 시간에 맞춰 매표소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체험프로그램은 A코스

와 B코스로 나뉜다. A코스는 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직판장-통일촌박물관으로 이어진다. B코스는 A코스와 제3땅굴부터 도라산역까지는 동일하나 통일촌 대신 혜준선생묘와 해마루촌으로 연결된다. 도라산역에서 열차로 견학할 수도 있으나 1일 1~2회에 불과하므로 운행시간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체험프로그램은 총 3시간쯤 소요된다.

매표를 하고나면 셔틀버스에 오르기 전에 임진각을 한 바퀴 돌아보자. 임진각은 남북대립의 슬픔이 새겨져 있는 각종 유물과 전적기념물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일깨우는 곳이다.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방문한다고 한다.

임진각에 있는 '평화의 종'은 새천년을 맞아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만든 종이다. 21세기를 상징하는 뜻에서 21톤의 무게에 21계단으로 만들어졌다. 지척에는 증기기관차가 녹슨 채 서 있다. 한국전쟁 중에 피폭되어 탈선한 후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임진각으로 옮겨와 전시해 놓았다. 비극적인 남북분단의 상장물이다.

임진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망배단이다. 설날이나 추석 등이면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는 실향민의 모습을 이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망배단은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헤어진 가족에게 배례하는 장소이다. 생사도 모르는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산가족의 아



1. 개성과 서울의 거리를 가리키는 임진각 풋말
2. 제3땅굴로 들어가는 셔틀엘리베이터
3. 도라전망대는 북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이다.

픔이 차가운 재단 위에 놓여있다.

북한의 남침야욕 피부로 느끼는 제3땅굴

드디어 DMZ 체험 셔틀버스에 올랐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정수는 제3땅굴 체험이다. 제3땅굴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서울까지의 거리가 불과 52km밖에 안 되는 지점에서 이 땅굴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더욱 등골이 서늘해진다. 제3땅굴은 길이 1,635m, 폭 2m, 높이 2m이다. 완전 무장한 북한병력 3만 명이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는 하나 방문객은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움츠리게 된다. 2002년부터 셔틀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지하 250m까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다. 셔틀엘리베이터를 타고 땅속으로 잠기는 동안 만감이 교차한다. 단단한 땅을 헤어 굽을 만든 그들의 무서운 집념과 날카로운 이상이 마음을 할퀸다. 몸을 낮추고 땅굴을 걸어가다 보니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여기까지다. 우리에게 허락된 결음은 지하의 어두운 땅굴 속에서 가로막혀 있다.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담기는 북녘 땅

제3땅굴 체험에 이어 도라산전망대에 오르면 북녘 땅

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썩 들어온다. 이곳은 DMZ 안에 위치한 전망대로 북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이다. 전망대에 서면 개성의 송학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등이 펼쳐져 있고, 망원경을 통해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 등을 볼 수 있다.

전망대와 가까운 곳에 도라산역이 있다. 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 m 떨어진 남쪽 최북단 역이다. 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동시에 향후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곳이다.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열차 탑승시간은 불과 5분. 그러나 끊어졌던 경의선이 민간인 통제구역인 도라산역까지 복구되는 데에는 장장 52년의 세월이 걸렸다. 남한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은 평양을 지나 중국과 시베리아, 나아가 유럽까지도 뻗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꿈을 담고 있다.

마지막 코스는 ‘통일촌’이다. 통일촌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있는 마을로 162세대 4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통일촌이 만들어질 때는 이스라엘의 기부츠 촌을 본 따 낮에는 일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 마을은 통일정보화마을, 장단콩 슬로푸드 체험마을, DMZ 세계화 브랜드마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평화통일의 거점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러셀, 게으름과 여가를 권하다

유럽 식민주의 시대에 유행하던 오래된 농담이 있다. 대낮에 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는 원주민과 그것을 본 영국인의 대화 내용이다.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라고 질책하자 원주민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며 묻는다. 영국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니, 다시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라고 답하자 원주민은 몹시 분한 듯 “그게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라고 소리치며 돌아눕더라는 이야기다.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른바 문명과 계몽을 자랑하는 영국인의 어리석음과 원주민의 지혜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활로 돌아오는 순간 아무런 의문도 없이 영국인의 사고방식과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

게으름은 인간이 지양해야 할 악덕인가?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를 일컬어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더 심하다. 입시경쟁, 취업·승진경쟁을 거쳐 정년퇴직까지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법적으로 8시간 노동제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사회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실하게 분투하는 사람의 성공담을 통해 대부분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낸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Russell, 1872~1970)은 현대인의 상식에 도전한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반대로 여가 확대가 개인 행복과 사회 유지의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주장 한다. “현대 기술은 여가를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권리로 만들어주었다. 근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며 현대 세계는 노예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처음에 전사와 사제들은 힘으로 강제하여 농부들을 생산케 하고 잉여를 내놓도록 만들었다.”

고대국가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제나 전쟁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의 탄생은 농부에게서 잉여생산물을 거둠으로써 가능했다. 그 대신 생산자들은 쉼 없이 일만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역할 분담을 순순히 받아들일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폭력적 강제를 통해 유지됐다. 그러다가 지배자들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해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면 더 쉽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은 근로의 도덕은 지배자가 생산자에게 유포한 노예의 도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여가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은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로 누구나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기계화·자동화에 힘입어 백년간 생산력은 수십 배 이상 발전했다. 하지만 물가 대비 실질임금 상승은 두세 배에 불과하다. 노동시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8시간 기준이다. 그럼에도 더 많이 일하라는 ‘근로의 도덕’이 맹위를 떨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노예의 도덕을 거부하고 계을러지자고 주장한다. “다수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가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생산력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을 최소화하고 여가를 최대한 늘리자고 한다.

하지만 노동과 여가의 구분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보화시대에는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힘든 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관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식노동이 일상화되면서 일과 여가의 기계적 구분이 없어지고, 예술가처럼 일이 곧 여가인 상태가 된다고 한다. 음악가는 휴가 중에도 악상을 떠올리고 미술가는 스케치북을 갖고 여행한다. 일과 여가가 구분이 안 되는, 일이 곧 여가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허구적인 면이 있다. 자동화의 진전은 항상 실업 확대로 이어졌다. 또한 예술가와 지식노동을 비유한 것도 허점이 많다. 예술 영역에는 다양성이 존재하기에 각 예술가들은 창조적인 작업에서 만족을 얻는다. 하지만 경제 영역은 독점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통해 극소수가 성과를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노동이 되어버린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자는 러셀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

2015 현장명예기자단 대모집



교육부 <행복한 교육>과 함께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줄
열정적인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교사, 교육공무원,
학부모,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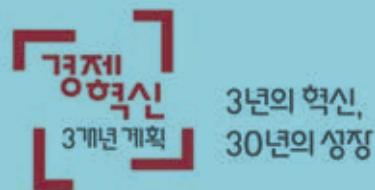
- 2015년 1월 10일(토)~31일(토)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인터넷 접수

주요 역할

- 교육 관련 정책, 인물, 현장 등을 취재하여 기사 작성 (월 1건 이상)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홍보 활동

특전

- 매월 <행복한 교육> 책자 제공
- 작성기사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활동기간 내 6개월 이상 기사 송고시 <행복한 교육>명예기자 활동증명서 발급



五자만담

○○○○○으로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꾸벅).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세상을 꿈꾸시나요? 올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흠페 이지>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五자만담 당첨자.....

12월호 주제 : 올 한해가 가기 전에 꼭 ○○○○○ 하겠습니다.
오동숙(가족과학회), 조향원(정규직승진), 임은성(제진심을전),
장효남(잔소리그만), 이정란(마음전하기)님 축하드립니다.

발행일 2015년 1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편집인 교육부 대변인

기획총괄 이재혁 홍보담당관

곽은우 교육연구사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실장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팀장

영업 (주)전우용사총

류광민 팀장

기획편집위원

위원장 김대원 서울 화원중 교장

위원장 허정前 여수 관기초 교장

배명숙 서울신화초 교감

표혜영 인천 부평동중 교감

오대영 가천대 교수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김광석 용산공업고 교사

김선희 좋은학교비른교육학부모회 대표

현장명예기자

강성훈(한국항공대) 국미경(고양 양일초)

권상기(천안봉초) 권혁기(대구왕선초)

김준우(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주연(전북 성수초)

김철수(창원 양덕여중) 김해리(이화여대)

박남범(천안쌍용고) 박민경(광사초)

손경애(나주왕곡초) 손균우(목포하당초)

신현태(완도 소안초) 양진(인천신정초)

양지훈(안산공고) 양희석(인양 부흥고)

우정민(경기 양평중) 유수경(전북학부모기자단)

이경화(광주 일신초) 이규배(천안성환초)

이정규(원주 상지여고) 이하성(미술협회 힘안지부)

임숙자(남원도통초) 장윤미(수원교육지원청)

정수진(강릉정보공고) 최재성(서강대)

최진영(경기 매류초) 한명숙(수원서광학교)

한은경(경기 소래고) 험지원(대전성남초)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서울시 종로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총

TEL 02-2271-0992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겨울나기

눈으로 인한 피해 종류



적설피해

눈이 많이 쌓여서
생김



설압피해

눈의 압력으로 생김



눈사태피해

경사면으로
미끄러져 내림



착설피해

가설물에 눈이 끓어
생김

보행 시 주의사항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는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 걸어가면서 통화하지 않는다.

★ 야간 눈길 보행은 위험하므로 일찍 귀가한다.



대설 특보 시 행동요령

노약자 어린이 외출 삼가



기상정보, 교통통제, 교통상황 확인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고립지역 비상연락체계 유지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 휴대(스노우 제인, 모래주머니, 삶 등)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김속 운전

★ 차간거리 확보

★ 간선도로 주차 금지

Q 폭설로 도로에서 고립·정체되었을 때 행동요령은?

A: 도로관리기관, 경찰서에 구조요청 후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라디오나 휴대 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행동요령 파악. 차량을 이탈해야 할 때는 연락처와 카를 꽂아 둔 채 대피.



국민안전처

예비 대학생 여러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등록금 고민은 교육부에 맡기고 대학생활의 꿈을 더 크게 키워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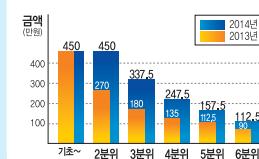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올해 3조 7,00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450만원+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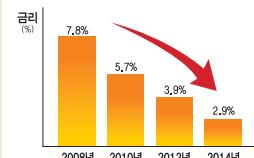
기초 ~ 6분위까지 집중 지원



든든학자금대출

재학중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취업 등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2.9%의 저금리로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으로도 부족한 등록금 전액지원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이자



국가근로장학금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재학중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통해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장학사업입니다.

시급 대폭 인상

